



#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

(통권 제16호)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화) ●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이달의 포커스 뉴스

2021년 베트남 물류 산업 보고서

24P

2022년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28P

[연말특집-법률] HOPEISNOWHERE

38P

|                                          |    |
|------------------------------------------|----|
|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 월간 뉴스 · 프로젝트 동향 ·····     | 2  |
| ☑ <산업> 2021년 베트남 전자 산업 ·····             | 12 |
|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 코참(KORCHAM)       | 19 |
| ☑ <베트남 비즈니스이야기 3탄> ····· K-MARKET 고상구 회장 | 21 |
| ☑ <새로나온 베트남 관련 보고서> ····· 물류산업 분석보고서     | 24 |
| ☑ <금융> 2022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신한베트남은행     | 28 |
| ☑ <노무> 현지 근로자 일방해고 절차 등 ····· 최지웅 변호사    | 35 |
| ☑ <법률> HOPEISNOWHERE ····· 김유호 변호사       | 38 |
|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하이즈영성> ·····           | 40 |
|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지표 ·····              | 47 |
|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                      | 52 |

편집 및 제작: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2021년 베트남 관광산업 정보

- 지속가능한 녹색관광, 문화관광, 스마트관광 중심의 2030 국가관광개발전략
- 베트남의 관광 인프라,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 및 발전

### 정책 및 규제

베트남 정부는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10년 주기로 국가관광개발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관광산업을 주요 경제부문으로 육성 ▲지속가능한 녹색관광 지향 ▲국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개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관광 ▲국내 및 국제관광의 동시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30년까지의 국가관광개발전략(147/QD-TTG)이 승인되었다.

### 산업의 수급 현황

(관광수입)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관광 수입이 -58.7% 감소해 136억 달러로 급락했다. 인바운드 관광은 2015-2019년 기간 동안 전체 관광 수익의 약 55~60%를 차지했으나 2020년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 관광이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이러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2021년 상반기 관광 수입은 58억 7천만 달러로 추산되며 전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경쟁력)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별 관광경쟁력(TTCI) 순위에서 베트남은 전 세계 140개국 중 63위를 차지하며, 2017년 67위에서 4단계 상승했다. WEF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이 달성한 최고의 경쟁력 지수는 가격경쟁력(22위), 문화자원관광(29위), 천연자원(35위) 순이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수는 국제 개방성, 가격 경쟁 및 항공 인프라이다.

### 유망 분야

(호텔업) 2015년을 기점으로 베트남이 관광지로 떠오름에 따라 관련 호텔 및 리조트 시장 또한 1만 9000여 개에 불과하던 업체 수가 2019년 3만여 개로 증가하며 연평균 12%로 빠르게 성장했다. 숙박 객실 수는 37만개에서 65만개로 늘었으며 이는 연평균 15% 증가를 보였다. 코로나19로 기존 투자가 지연되는 등 관련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대형 호텔들을 중심으로는 관광수요 회복에 대비 직원교육 및 추가 투자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관광인프라) 최근 몇 년 동안 베트남의 관광 인프라는 Van Don 국제 공항, Ha Long 관광 선박 항구와 같은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광객이 몰리는 시즌에는 실제 수요 대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일부 관광지에만 관광객이 집중되는 병목현상으로 환경오염 및 관광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관광총국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 힘쓰고 있어 관련 투자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월부터 베트남 전역 봉쇄가 완화됨에 따라, 각 지역별 관광산업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프라 개발 작업이 곧 재개될 것이다.





## 베트남 임플란트 시장동향

- 2025년 99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 한국 제품 높은 신뢰도 바탕으로 후속제품 진출 방안 모색 필요

### 수입동향

2020년 베트남 임플란트(HS Code 902129 기준) 수입시장 규모는 약 1461만 달러이며, 2020년 수입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로 인해 2019년 대비 33.32% 감소를 보였다. 2020년 수입 통계 기준 베트남의 치과용 임플란트 수입국 1위는 한국, 2위는 미국, 3위는 멕시코로 3개 국가가 베트남 전체 임플란트 수입시장의 절반 이상인 60.8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치과용 임플란트 수입국 1위로 2019년 대비 8.45% 감소를 보였으며 베트남 임플란트 수입 시장의 25.82%를 차지하고 있다.

### 경쟁동향

베트남의 임플란트 제품은 90% 이상 수입 제품이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지 치과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는 대표적으로 한국의 덴티움, 오스템, 프랑스의 테카, 스위스의 스트라우만, 미국의 노벨 등이 있다. 베트남 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은 브랜드별로 600달러에서 1700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중 한국 브랜드인 덴티움과 오스템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베트남 내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 관세율 및 인증

베트남 내 임플란트 수입·유통하려면 수입라이선스부터 획득해야 하며 베트남 보건부(MoH)의 의료기기 수입규정(Circular 30/2015/TT-BYT)을 따른다. 본 법령에 따르면 수입허가 신청서, 자유판매 증명서, 국제 품질관리기준 증명서(ISO)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 수입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임플란트 수입이 가능하다.

### 전문가 인터뷰 및 시사점

치과용 임플란트에서 지주대는 생물학적으로 턱뼈와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치아 뿌리역할을 하므로, 치아의 건강과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종류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현지 치과 의사 D씨에 따르면,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임플란트가 고가의 치과 치료에 속해 현지인들에게 보편화되진 않았다. 임플란트 치료는 외국인과 베트남 상류층이 주요 고객층이며 주로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교정(인비절라인) 등 미용 목적으로 치과에 방문한다. 우리 한국 브랜드들은 현지 대리점을 통해 많이 진출해 있으며,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베트남 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보통 임플란트 브랜드는 의사 추천을 바탕으로 선택하므로,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 시 현지 대리점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현지 치과 대상으로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무게를 두고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성장하는 베트남 남성 그루밍 시장

- 2020~2025년 연평균 9% 성장, 3억 3950만 달러에 이를 전망
- 2020년 한국에서 20% 증가한 2억 269만 달러 규모의 화장품 수입
- K-Pop, K-Drama 영향으로 한국 남성 화장품 제품 주목 지속 전망

최근 베트남의 소득 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대도시를 위주로 자기관리에 관심을 갖는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베트남 남성의 그루밍 열풍은 한류 등 외국 대중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류의 영향과 한국 아이돌, 배우의 인기는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대한 베트남의 시각을 바꾸고 있다. 특히 MZ 세대 중심으로 남성 소비자가 퍼스널케어 제품에 지출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출 품목도 면도기, 헤어 왁스 등 단순 관리용 제품에서 스킨케어, 자외선 차단제 등을 비롯한 화장품, 향수 등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수입동향

남성용 화장품을 따로 분류하는 HS코드 품목번호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남성용 화장품은 330499번으로 분류된다. 330499는 선스크린과 선텐 관련 제품을 포함한 미용 또는 메이크업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 제외)로서 2020년 베트남은 총 4억 3053만 달러의 화장품을 수입하였으며, 이 중 한국에서는 전년대비 20% 증가한 2억 269만 2000달러 규모의 화장품을 수입했다. 한국은 HS Code 330499번의 최대 수입국으로, 최대 수입국자리를 5년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다.

### 유통구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Euromonitor에 따르면 베트남의 남성용 그루밍 제품 유통 구조는 대부분 오프라인 판매로, 오프라인 전체 소매 비율 87.2% 중 53.8%는 편의점,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등의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며 27.8%는 약국, 드럭스토어, 미용용품전문 소매점 등에서 판매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직판 또는 전자상거래를 판매로 대표되는 비상점 기반 소매는 2015년 대비 연평균 11.3%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남성 그루밍 제품의 온라인 전자상거래물 판매 시장은 점차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점

#### 시사점 1 - 남성용 뷰티 제품 전자 상거래 시장 증대 예상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매출 증대를 위한 정기 프로모션 등의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실제로 매장을 찾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베트남의 남성 그루밍 제품 온라인 시장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시사점 2 - 남성용 그루밍(미용) 제품의 다양화

베트남의 남성 소비자가 외모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성들은 미용 수술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비침습적인 얼굴 안면 리프팅과 바디 웨이핑 관리 등과 함께 미용 관리 제품이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21 베트남 철강산업 정보

- 4분기 철강 생산, 실제 전염병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
- 철강 생산 능력, 국내 수요 초과하지만 일부 품목에 생산이 집중돼 공급 불균형 해소 필요

### 기술동향

철강업체들은 신규 투자사업, 증설사업, 리노베이션 사업에서 친환경·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과 설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신규 설립, 확장 및 개조를 포함한 철강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투자는 규정된 에너지 효율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03/2014/TT-BCT0)을 준수하는 기술 및 장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요 이슈

베트남 철강산업은 철강 제조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요 투입 원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베트남 철강협회(VSA)에 따르면 해당 산업은 연간 철광석의 약 90%, 철·고철의 70%, 점결탄 100%, 흑연 전극의 100%를 수입하고 있다. 2021년 투입원료 수입 수요는 철광석 약 1800만 톤, 철·고철 600만~650만 톤, 유연탄 650만 톤, 흑연전극 1만 톤 정도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철강산업은 세계시장 변동에 취약하다. 2020년 말부터 투입되는 원자재 국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지속되면서 모든 베트남산 철강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

### 생산 및 소비 동향

베트남의 철강 생산 능력은 현재 국내 총 수요를 초과하지만 일부 철강 품목에 생산이 집중돼 있어 공급의 불균형을 이룬다. 주로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 봉형(봉강), 아연 도금 강판(냉연, 열연, 도금/코팅 강판) 및 강관과 같은 품목은 재고가 많아 일반 건축용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는 충족하지만 제조업 및 지원 산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고급 철강 제품에 대한 수요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VS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베트남 철강산업의 총 설계 생산 능력은 연간 3000만 톤 이상이고, 철강 공장의 실제 연간 생산량은 2500만 톤 이상으로 최대 생산 능력의 약 80%에 불과하다. 한편, 수출 및 국내 시장 소비는 매년 2300만 톤에 불과했다. 철강 업계는 2021년 상반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유지했다. 총 생산량은 1590만 톤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7%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총 판매량은 1410만 톤을 달성해 35%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 유망분야

VSA는 기존 제철소의 제품 경쟁력 및 품질 향상, 폐기물 감소,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완화에 대한 투자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성에 맞춰 Formosa Ha Tinh Steel(FHS)은 열연코일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슬러지의 산화철, 탄소, 아연을 자원으로 회수 및 재활용해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먼지 재활용 기술인 회전로(RHF)에 8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해당 공사는 2021년 말에 시작 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봉쇄 규제로 지연됐다.





## 베트남 진출의 성공전략, 여심을 잡아라

- 모계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는 사회로 여성의 사회 진출률 높아
- 소비력을 갖춘 2030 여성들이 최근 소비트렌드를 이끌어

지난 10월 20일은 베트남 여성의 날이었다. 여성의 날을 맞아 코로나19로 극심한 침체를 겪던 다낭시의 소비시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베트남에서 여성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이렇게 폭발적인 소비가 일어난 것일까?

### 모계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는 베트남 사회

베트남은 모계사회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다. 관련하여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응웬 판 티 투 히엔 교수에 따르면 베트남은 과거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남자는 나라를, 여자는 가족과 지역 사회를 지킨다는 관념이 뿌리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은 강한 생활력과 독립성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성은 베트남의 독립과 혁명에 크게 기여했는데 베트남 정부는 이런 여성의 역할을 존중하여 독립 후 첫 국기 게양식에 참가한 국민대표단 4명중 2명을 여성에게 배정했고, 이러한 여성의 노고와 희생을 기려 '베트남 여성의 날'을 따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 여성의 사회진출률이 높은 베트남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의 사회진출률은 70%를 상회하여 세계 평균 47.2%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공직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올해 6월에 치러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499명중 30%가 넘는 151명의 여성위원이 당선되기도 하였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의 활약이 돋보인다. 베트남 내 여성 소유의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내 고위 경영층의 여성 비율도 3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SNS와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트렌드를 주도하는 2030여성

베트남은 MZ세대가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는 젊은 국가인데, 이중에서도 단연 2030 여성들이 SNS와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시장조사업체 닐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67%가 여성이었으며, 베트남 백화점의 2030 여성 고객 비중은 전체에서 72%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Q&ME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이 스마트폰 선호도 1위를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품질과 럭셔리 브랜드라는 이미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향후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2030 여성들의 주소비품인 기능성 화장품, 펠러, 다이어트 식품 등의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베트남 핵심 소비층인 2030 여성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바이럴 마케팅과 질적 소비를 추구하는 특성을 맞춰 브랜드 고급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남부지역 냉동·냉장창고(cold storage) 공급 감소로 임대료 급증

4분기 베트남 남부지역의 냉동·냉장창고 임대료는 공급 감소로 인해 톤 당 87 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년 1분기 대비 1.67배 증가한 가격임. 부동산 컨설팅 기업 Savills Vietnam은 베트남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생한 전자상거래 붐이 냉동·냉장창고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베트남의 냉동·냉장창고 시장은 연 12% 성장하여 '25년에는 2억 950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 분석함. 또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의 베트남 시장 담당 수석이사 Trang Bui는 향후 5년 내 냉동·냉장창고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며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 전망함.

[VN Express, 11. 15]

### ▶ 베트남, 외국인 투자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지침 초안 마련

기획투자부는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및 평가에 관한 지침서 초안을 마련함. 이 지침서 초안은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 활동에 대한 4장 24조를 포함함. 더불어 외국인 투자 활동에 대한 감독, 권한, 기능, 임무, 절차 및 법규에 근거하여 평가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관련 기관들은 투자 등록 증명서 및 이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발급하고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감독 및 평가해야 하며, 매년 이듬해 2월 20일 이전까지 기획투자부에 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송부해야 함.

[Hanoi Moi, 11. 14]

### ▶ 베트남,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고

베트남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망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4%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말 휘발유 가격과 일부 생필품 가격 상승 등의 상황이 향후 큰 폭의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음을 밝힘. 최근 한달간 채소, 과일 가격이 전월 대비 1.3~1.5배 증가했으며 휘발유 가격은 9월부터 5번 연속 상승함. 통계청은 휘발유 가격 상승을 CPI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함. 또한 이로 인하여 철강 가격 상승 위험이 있으며, 뒤이어 건축자재 가격도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전문가는 이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휘발유 가격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금 및 통화정책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휘발유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함.

[Hanoi Moi, 11. 17]

### ▶ 동나이성,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 11월까지 FDI자본 11억 달러 이상 유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동나이성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증대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11월 17일까지 연간 계획의 156.5%를 초과한 11억 달러의 신규 등록자본을 유치함. 동나이성에는 등록된 투자 자본 3억 5885만 달러, 46개의 신규 FDI 프로젝트와 추가 자본 7억 3664만 달러, 94개의 FDI 프로젝트가 있음. 동나이성의 누적 외국인투자는 총 45개국 1,500개 사업, 320억 달러 규모로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Nestle은 베트남에 추가로 1억 32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베트남의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나타냄.

[Vietnam Investment Review, 11. 17]



##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리더, 경제 회복 솔루션을 위한 원칙 강조

경제 회복 솔루션 구축은 국가가 뉴노멀 상황으로 전환할 때 코로나19의 전개, 예방 접종의 진행 및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능력에 달려 있다고 응웬 찌 중(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이 전함. 중장관은 1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질의응답 세션에서 '조치는 개방된 방향으로 구축되어 각 특정 시점의 빈곤층의 현실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전함. 그는 이 조치가 단기적으로 빠른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5개년 및 장기 전략 및 계획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와 부실채권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통화 공급을 유연하게 관리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원자재, 연료 및 필요한 물품의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11. 13]

## ▶ 베트남, 2016-2019년 신발산업 매년 12.1% 성장...신발 최대 수출국 2위 기록 캔버스화는 중국 꺾고 수출 1위

2016-2019년 베트남의 신발산업은 연 평균 성장률 12.1%를 기록하였으며, 캔버스화의 경우 중국을 꺾고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섬.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베트남 생산 신발제품은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등을 포함한 전세계 150개국 이상에 수출되었으며, 그 중 미국이 신발제품 전체 수출액의 1/3을 차지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분기 신발제품 수출액은 29억 달러로 2분기 대비 47.4% 감소, 전년 동기대비 26.9% 감소함.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과 EU 등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며 소비시장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베트남의 가죽·신발 수출의 성장 모멘텀 회복 기회가 될 것이라 분석함.

[VOV, 11. 12]

## ▶ 베트남 중앙은행, 2022년 인플레이션 위험 경고

베트남 중앙은행(SBV) 총재는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많은 선진국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고 베트남과 같은 개방 경제 국가에서도 인플레이션 위험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함. 베트남 중앙은행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중이며, 인플레이션 위험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금리 패키지 지원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힘. 추가적으로 중앙은행은 은행의 대출 이자율과 수수료 감소로 인하여 기업과 개인의 투입 비용을 줄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므로 기업과 개인의 주의를 요함.

[VN Express, 11. 12]

## ▶ 베트남 디지털 경제 규모 210억 달러 달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외출을 지양하면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산업이 53% 성장함에 따라 2021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2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소비자들은 디지털 구매 방식을 이용하는 경향이 늘어났으며 유지율과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많은 기업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음. 기업과 소비자 모두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디지털 경제 사용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디지털 경제 기업의 투자 자본 역시 급격히 증가함.

[VN Express, 11. 11]



## ▶ 베트남 국회, 경제 회복 목표 설정

베트남 국회는 GDP 성장률 6~6.5%, 소비자 물가지수 4%, 재정적자 비율 4%를 포함한 2021년 경제 회복 목표와 2022년 경제성장률 기대치를 설정함. 또한 코로나19 예방 접종비율의 경우, 2021년 연말까지 인구의 70%에게 2회 접종을 제공할 계획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3번째 접종(부스터샷)을 실시할 계획임. 2022년 경제 전략의 핵심 목표는 2개의 부실한 신용기관과 최소 5개의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를 구조 조정 하는 것이며, 이는 2022년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11. 10]

## ▶ 베트남 철도 관련 6개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 촉구

베트남은 하이퐁, 비엔 호아-붕파우, 쟁 봄-호아 흥 철도 사업, 하노이의 동부 순환 철도, 투 티엠-롱탄 국제 공항 경전철, 봉양-탄압-무자 철도 노선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구 방안을 교통부에 제안함. 이 6개의 철도 프로젝트에 투자 시 외국인투자자는 자본 제공, 협력, 기술이전, 벤처 설립 및 주식 구매가 가능함. 현재 베트남의 철도 프로젝트는 기존 7개 노선 외에 남북고속철도를 포함해 약 6,354km의 총 18개 노선이 신설되며 이 프로젝트에는 240조 동의 자본금이 포함된 2021-2030년 국가 교통 프로젝트도 포함됨.

[Vietnam Investment Review, 11. 9]

## ▶ 베트남, 소비 위축 이후 더딘 회복세

IM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설문에 참여한 가구의 약 68%가 소득 감소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됨.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가구 당 지출이 약간 증가했지만 이는 의료, 음식, 공과금 세개 부문에서만 증가했으며 증가한 소비 규모도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낮은 수준임. 추가적으로 가전제품 및 장비에 대한 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긴 사회적 통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저축하는 경향이 늘어났으며, 베트남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생산이 재개된 후 IMF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3개월 전 12에서 2021년 11월 18로 상승해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11. 9]

## ▶ 베트남, 경제 복구를 위한 긴급 구제 금융 시작

팬데믹이 베트남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자 베트남 국회와 정부는 기업 활동과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 긴급 구제 금융을 시작함. 지난번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안(No.406/NQ-UBTVQH15)은 9억 26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과 개인을 지원함. 정부는 2022년 6월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50% 인하하여 생산 및 비즈니스에 대한 투입 비용을 줄이고 제품 판매 가격을 낮춰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고 전함. 또한 2020년 손실로 인한 기업의 세금 채무, 토지 사용 및 토지 임대료와 관련된 2020년 및 2021년 이자에 대한 연체를 허용함.

[Vietnam Investment Review, 11. 3]



## ▶ 2022년 초,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 RCEP 발효

10개의 아세안 회원국과 5개의 비아세안 회원국이 포함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RCEP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RCEP은 시장이 세계 인구를 약 30% 차지하고 세계 GDP의 약 30%, 국가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며 이에 따라 RCEP은 91%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투자, 지적재산권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표준화 할 것으로 예상됨. RCEP은 기업을 위해 효율적인 공급망을 촉진하고 최근 불안정한 공급망의 맥락에서 아세안 국가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출 시장을 구축함.

[VN Express, 11. 3]

## ▶ 2021~2025년 기간 외국인 투자 유치 프로젝트 목록 공식 발표

베트남 부총리는 2021년~2025년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를 요구하는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함. 이 목록에는 교통 인프라, 산업 지대(IZ), 에너지, IT, 교육 및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 농업, 임업 및 수산업, 서비스를 포괄한 714억 6000 만 달러 규모의 157개 프로젝트가 포함됨. 구체적으로 ▲ 교통 인프라 부문 : 호치민 시의 지하철 4호선 및 Hon Khoai-Ca Mau 항구 포함 34개 프로젝트 ▲ 에너지 부문 : 예상 자본금 40~60억 달러의 Nghi Son 경제 구역의 석유 화학 단지과 플라스틱 재료 생산 시설 등 ▲ 교육 및 의료 사업 부문 : 국제 대학교-하노이 국립 대학교, Tuyen Quang 병원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됨. 기획투자부(MPI)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투자 촉진을 위해 다른 부처 및 지역과 협력중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11.3]

## ▶ 하노이, 올 9개월간 지역내총생산(GRDP)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

11월 2일 하노이시 당서기, 하노이 국회 대표단 그리고 세계은행 베트남 대표가 참가한 하노이시 회의에서 하노이의 2016년~2020년 4개년간 지역내총생산(GRDP)은 연평균 7.39% 증가하였으며, 2021년 9개월 동안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고 올 10개월 동안 하노이 예산 수입은 91.5%에 도달함을 밝힘. 또한 하노이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5,420 달러로 베트남 전국 평균의 1.8배에 달하며 하노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6%, 국가 총 예산 수입의 18.5%, 국가 전체 수출입규모의 8.5%를 기여한다고 전함. 11월 2일 기준, 하노이시는 18세 이상 인구의 92%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54% 이상이 2회 접종을 완료함. 또한 최근 만12세~17세 청소년에게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함. 하노이시는 세계은행에게 빠르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어나가기 위해 FDI 투자, ODA 지원 및 양허성 대출이 필요함을 밝힘.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하노이가 개발을 촉진하기 보다 급속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해결할 적기임을 강조하고 추후 하노이를 지원할 것에 동의함. 회의단은 추가적으로 하노이시의 대기 오염 극복, 폐수 처리, 고형 폐기물 처리, 도시철도 등 에 대해 논의하고 하노이시 당서기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촉진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힘.

[Hanoi Moi, 11. 2]



## (입찰정보)

###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Nam Son 폐기물처리장 확장 (Phase 2)

☐ 9번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oohopark@kotra.or.kr)

###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Nam Son 폐기물처리장 확장 (Phase 2)

|      |                                                                                                                                                                                                                                                                                                                     |
|------|---------------------------------------------------------------------------------------------------------------------------------------------------------------------------------------------------------------------------------------------------------------------------------------------------------------------|
| 발주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Hanoi Department of Construction</li> <li>○ 연락처 : +84-24-3976-1294</li> </ul>                                                                                                                                                                                        |
|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치 : 하노이 Soc Son</li> <li>○ 규모 : 약 25 백만 달러</li> <li>○ 프로젝트 재원 : 공공투자 등</li> <li>○ 프로젝트 단계 : EIA 및 토지허가 진행 중</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량 기존 1,000 톤/일에서 5,000~8,000 톤/일로 확장 계획</li> <li>- 확장 부지규모 : 총 73.73ha</li> </ul> </li> </ul> |

☐ 9번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

|      |                                                                                                                                                                                                                                                                                                                                                                               |
|------|-------------------------------------------------------------------------------------------------------------------------------------------------------------------------------------------------------------------------------------------------------------------------------------------------------------------------------------------------------------------------------|
| 발주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Quang Tri성 인민위원회</li> <li>○ 연락처 : +84-233-3553-713</li> </ul>                                                                                                                                                                                                                                                                  |
|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위치 : Quang Tri성</li> <li>○ 규모 : 약 19.05 백만 달러</li> <li>○ 프로젝트 재원 : WB</li> <li>○ 프로젝트 단계 : Pre-F/S완료, F/S 진행 중, 2022년 입찰 진행 예정</li> <li>○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간 : Cua Viet Port(Gio Linh군) ~ Thanh An현(Cam Lo군)</li> <li>- 규격 : 길이 13.8km, 4차선, 설계속도 60~80km, Width : 20.5~25.5m</li> </ul> </li> </ul> |



## 2021년 베트남 전자산업 정보

### 가. 산업 특성

#### 정책 및 규제

2018년 3월, 베트남 정부는 2030년 국가 산업 개발 정책 결의안(23-NQ / TW)을 통해 전자산업 및 무선통신기기 산업을 개발 우선순위 분야로 선택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제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자국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무선통신기기 부품산업 관련 세금 감면책과 각종 인센티브 지원책이 각 지방성마다 다르게 적용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0년 8월 Decree 115/NQ-CP를 발효하여 세부 시행령을 규정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동 결의안에서 향후 10년 안에 다국적 생산 기업에 부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업 2,000개사를 육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투자가 대상, 법인세·수입세 감면, 신용대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경우 부품 생산 전 공정 중 일부를 현지기업에 기술 이전하여 생산에 참여시킬 수 있다면 초기 투자비용 감소 및 정부의 지원 혜택 효과도 볼 수 있다.

결의안 115(115/NQ-CP)의 주요 내용

#### 1) 목표

|          |                                                                                                                                                                                        |
|----------|----------------------------------------------------------------------------------------------------------------------------------------------------------------------------------------|
| 2025년 까지 | · 베트남 기업은 국내 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필수 수요의 45%를 충족하는 경쟁력 있는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용 부품 생산, 산업 생산 가치의 약 11%를 차지<br>· 베트남 내의 조립 기업과 다국적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약 1,000 개 목표<br>· 국내 기업 비율 약 30% 목표 |
| 2030년까지  | · 베트남 기업은 국내 생산 및 소비에 필요한 필수 수요의 70%를 충족하는 경쟁력 있는 지원 산업용 부품 생산, 산업 생산 가치의 약 14%를 차지<br>· 베트남 내의 조립 업체와 다국적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약 2,000개 목표                                              |

#### 2) 세부과제

|                     |                                                                                                                                                              |
|---------------------|--------------------------------------------------------------------------------------------------------------------------------------------------------------|
| a) 부품 및 예비 부품 산업 지원 | 2025년까지 국내 수요 베트남 내 예비 부품, 금속 예비 부품, 플라스틱-고무 예비 부품 및 <u>전자산업 예비 부품</u> 개발                                                                                    |
|                     | 2030년까지 국내 수요의 65%를 공급하고 <u>하이테크산업</u>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 분야의 생산을 촉진                                                                                             |
| b) 첨단 산업을 위한 산업 지원  | · 전문적인 지원 장비를 제공하고 <u>첨단 산업에서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u> 을 개발<br>· 소프트웨어 및 장비 제조 기업의 국제 표준 기계 유지 보수 및 수리 기업을 설립<br>· 신소재, 전자제품 및 무선통신기기 연구 개발 및 시스템 첨단 지원 |

\*주: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자 산업 관련 지원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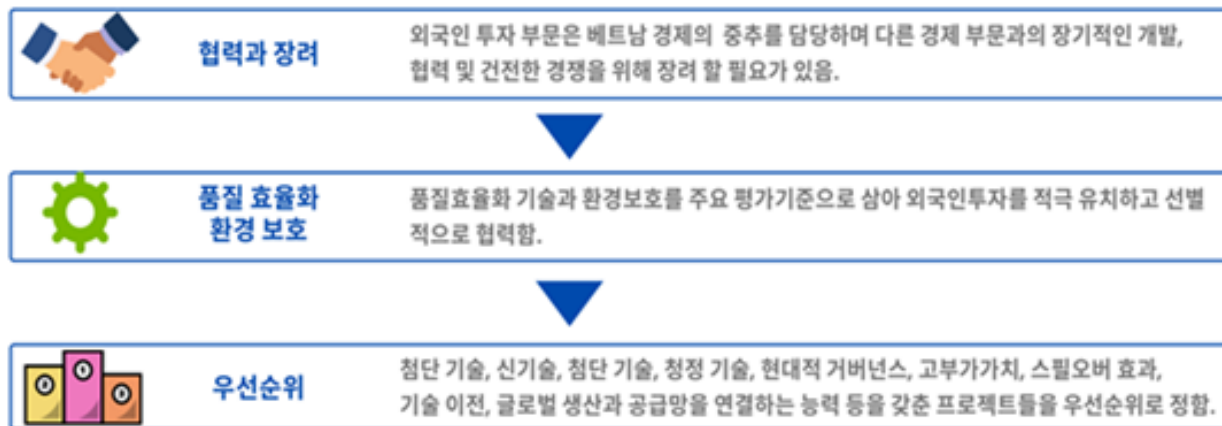
자료: 115/NQ-CP,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또한 베트남 정부는 FDI 기업 우대 정책을 실시 하고 있다. 결의안 50(Decision 50/NQ-TW)에 따른 외국인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결의안 50(50/NQ-TW)의 외국인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 방향



자료: 기획투자부(MPI) 외국인 투자청(FIA),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의 FDI 기업 우대 정책

|                                                                  | 현행 투자법에 따른 인센티브<br>(67/2014/QH13)                                                                                                                                                                                                                         |   | 2021년 개정 투자법<br>(61/2020/QH14) 상의 인센티브 |
|------------------------------------------------------------------|-----------------------------------------------------------------------------------------------------------------------------------------------------------------------------------------------------------------------------------------------------------|---|----------------------------------------|
| 세금 우대 기간                                                         | 사업개시 연도부터 30년간<br>10% 우대 세율 적용                                                                                                                                                                                                                            | ▶ | 사업개시 연도부터 37.5년간<br>우대세율 5% 적용         |
| 세금 면제 사항 및<br>감면 기간                                              | 법인세 최초 4년간 면제,<br>이후 9년간 50% 감면                                                                                                                                                                                                                           | ▶ | 법인세 최초 6년간 면제,<br>이후 13년간 50% 감면       |
| 2021년 신규 투자법 상<br>인센티브 대상 및<br>프로젝트 조건(2021 개<br>정 투자법 제15조 제2항) | 1) 투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6조 VND(2억5940만 달러)를 투자하고 수익 발생일로부터 3년간 매년 10조 VND(4억3240만 달러) 이상의 총 수익 또는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프로젝트<br>2) 사회 주택 프로젝트(social housing project)<br>3) 하이테크 프로젝트<br>4) 창의적 스타트업, 혁신 센터<br>5) 중소기업 지원 관련 프로젝트가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추가됨. |   |                                        |
| 특별 인센티브 조건<br>(2021 개정 투자법<br>제20조)                              | 1) 총 투자금 6조 VND(2억 5940만 달러) 이상의 R&D 또는 혁신 센터(innovation center)<br>2) 총 투자금 30조 VND (12억 9704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로 3년 이내에 10조VND (4억 3240만 달러)의 투자를 실행하는 프로젝트 등의 경우 법이 정한 인센티브에서 50% 상향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음.                                                      |   |                                        |

자료: 61/2020/QH14, FIA,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주요 기업 현황

일본의 캐논, 파나소닉과 한국의 LG전자 등 주요 가전업체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내수용 제품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 삼성전자의 베트남(박닌성) 투자로 인해 본격적인 베트남 전자 산업의 도약을 이루었다. 삼성전자에 이어 교세라('11년), 노키아('12년), LG전자('13~'16년), 후지제록스('13년), 인텔('15년) 등 전자제품 및 반도체 업체가 순차적으로 진출하였다. 베트남 FDI산업에 초기에 투자진출한 기업 중 삼성전자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는 전무후무하다. 2008년 북부 박닌성에 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무선통신기기 제조공장 설립을 필두로, 2020년 기준 삼성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약 175억 달러이며 베트남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 주요 공단지역

베트남의 전자제품·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공장은 주요 공단에 집중되어 분포해 있다. 남부의 주요 산업 단지로는 호치민시에 위치한 하이테크 산업 단지인 Saigon High Tech Park(SHTP)가 있으며, 초기 진출기업인 인텔과 삼성 등이 SHTP에 자리를 잡았으며, 뒤를 이어 Nidec, Jabil과 같은 회사가 SHTP단지에 입주하였다. 베트남 전자제품·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최대 투자지역은 하노이를 둘러싸고 있는 북부지방이다. 하노이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박닌은 삼성의 최초 진출 지역이며, 이후 폭스콘과 캐논을 유치했다.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도시인 하이퐁은 주요 공단까지 도로교통이 편리하며, 심해항과 인접하고, 중국 선전의 공단까지 트럭으로 12시간만에 운송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 하이퐁에 진출한 주요 기업으로는 LG, 페가트론, ASE 홀딩스의 자회사인 USI등이 있다.

## 최신 기술 동향 및 주요 이슈

### 메이저 통신 회사들의 5G 기술 경쟁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비에텔(Viettel), 베트남우정통신그룹(VNPT), 모비폰(MobiFone) 등 3개의 대형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하노이, 호치민, 다낭, 하이퐁 등 4대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승인했다. 비에텔은 자체 연구제작한 gNodeB트랜시버에서 5G기술을 사용한 첫번째 화상통화를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5G 통신 시범운동을 시작했다. VNPT는 2020년 12월부터 하노이와 호치민시 중심지역에서 5G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비폰도 비슷한 시기에 호치민시에서 4K, 8K비디오 스트리밍, AR/VR 가상현실게임, AI학습, IoT서비스를 포함한 상용 5G서비스의 시범운동을 시작했다.

### 빈패스트(VinFast)와 FPT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베트남 최초의 전기차를 개발한 빈패스트(VinFast)는 FPT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했다. 자율주행 기능 레벨 2-3이 있으며 지능형 운전 지원 시스템, 적응형 차선 제어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활성화, 다중 충돌 경고 시스템, 충돌 완화 시스템, 자동 주차 시스템 및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VF31, VF32 및 VF33 모델에는 모두 LiDAR 센서를 포함한 고성능 센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 베트남, 2030년까지 아세안의 AI허브로 발돋움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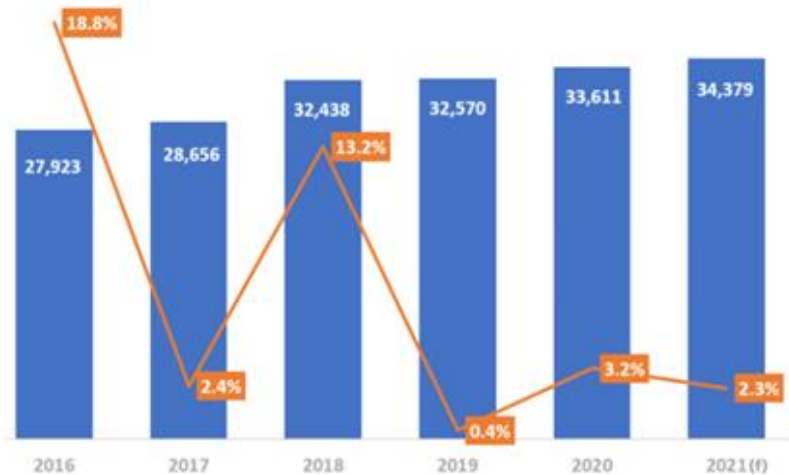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을 ASEAN과 세계의 혁신 및 AI 허브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의 연구,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후잉 타잉 닛(Huynh Thanh Dat) 베트남 과학 기술부 장관은 베트남이 2030년까지 AI 연구, 개발 및 적용 측면에서 ASEAN의 4대 국가, 전 세계적으로는 50대 국가로 거듭나는 것이 전략 목표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베트남은 10개의 시기업을 육성하고 3개 국가 빅데이터 및 고성능 컴퓨팅 센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 나. 산업의 수급 현황

### 시장규모

Euromonitor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전자제품·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판매 대수는 3,257만 대로 전년 대비 0.4%의 성장에 그쳤으나 2020년 판매 대수는 3,361만 1,000 대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2021년에 베트남의 전자제품·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판매 시장은 2.3% 성장할 전망이다.

베트남 전자제품·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판매량 추이(2016-2021) / (단위: 천 대, %)



자료: Euromonitor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품목별 판매 순위

2021년 1월부터 7월 기준, 무선통신기기는 베트남에서 약 2억 7천 대가 판매되어 전자제품·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품목별 판매 순위 1위에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영상 및 오디오 관련기기는 426만 7천대, 컴퓨터 및 주변 기기는 292만 2천 대, 차량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13만 8천대 판매되었다.

### 휴대폰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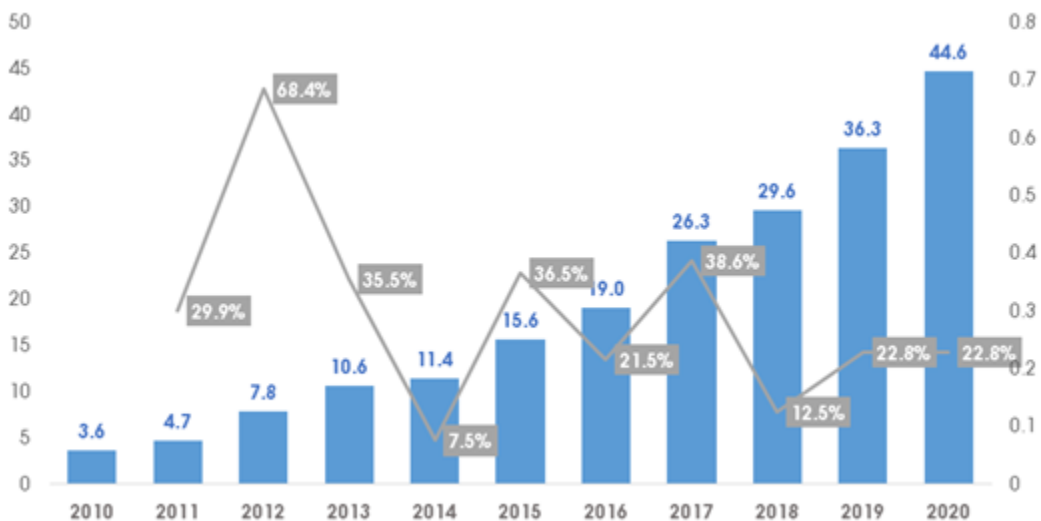
Centerpoint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삼성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37%로, 2020년 2분기 대비 2%p 감소했으나, 전체 점유율에서는 독보적으로 1위를 지켰다. 샤오미는 2020년 2분기 대비 7%p 상승한 17%의 점유율을 보였다. 오포는 2020년 2분기 대비 9%p 감소한 16%를 차지했으며, 비보, 애플 등이 뒤를 이었다.



## 수출동향

2019년 베트남의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의 수출액은 363억 달러를 기록하며, 섬유 및 의류 분야를 제치고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에 이어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수출 품목이 되었다. 베트남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의 2010년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5%인 36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8.6% 급성장하여 2020년에는 446억 달러에 달했다. 2020년 기준,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509억 달러)과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446억 달러)의 수출액을 합산한 전자산업 총 수출 규모는 955억 달러에 육박하며, 이 규모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34%를 차지한다.

베트남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 분야(무선통신기기 제외) 수출규모 및 성장 추이 (2010-2020)  
(단위 : US\$ 십억, %)



자료: 베트남 통계청

2021년 상반기에도 역시 베트남의 최대 수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이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한 251억 달러를 기록하여 상반기 전체 수출액의 15.9%를 차지했으며,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 수출액은 237억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였다. 또한 HS Code 85류 품목(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의 2020년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352억 3723만 8000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2위 수출국으로 265억 5027만 9000 달러를 기록했으며, 대만, 일본, 미국, 아일랜드 등이 뒤를 이었다.

## 수입동향

2020년 베트남 수입품목 1위는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으로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24.6% 증가한 639억 7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66억 4500만 달러규모가 수입되어 수입품목 5위에 올랐다.



##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 생산 산업생산지수

2016년을 제외하고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 제조업의 산업생산지수(IIP) 성장률은 2015년 이후 5년 동안 제조업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의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 제조 산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산업생산지수를 15~20%대로 유지했다.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 제조업 산업생산지수 성장률 (2015-2020) / (단위: %)



자료: 베트남 통계청, Vinacredit

## 다. 진출 전략

###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치적 안정성과 저렴한 인건비용</li><li>- 부품소재 육성 산업 정책</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베트남 내 부품소재 산업 기반 취약</li><li>- 전문 기술자 및 숙련공의 부족</li></ul>                                  |
| 기회(Opportunities)                                                                                                               | 위협(Threat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베트남으로의 제조기지 이전</li><li>- 베트남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무선통신기기 시장의 성장, 5G 출시</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무선통신기기 제조업 관련 해외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li><li>- 일부 대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li></ul> |

### 유망분야

전자제품·컴퓨터 및 부품 제조업/무선통신기기 제조의 경우, 베트남의 낮은 기술 수준으로 인해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실상 조립 공장이 대다수이다. 조립공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분야’ 보다는 보다 낮은 인건비 획득을 위한 ‘공단 위치 별 투자 환경’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지역으로서 남부와 북부 비교

|                | 장점                                                                                                                                                 | 단점                                                                                                                                                             |
|----------------|----------------------------------------------------------------------------------------------------------------------------------------------------|----------------------------------------------------------------------------------------------------------------------------------------------------------------|
| 북부<br>(하노이 중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 임대료</li> <li>- 노사분규 발생률 미미</li> <li>- 근로자세 양호(인내심, 조직 적응력)</li> <li>- 전자 분야 산업 발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 부족</li> <li>- 내수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음</li> <li>- 연관 산업 발달이 미비</li> </ul>                                         |
| 남부<br>(호치민 중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기반(호치민, 동나이, 빈즈엉 등)</li> <li>-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관행</li> <li>- 연관 산업의 발달(특히 섬유와 신발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상승 추세(호치민 인근)</li> <li>- 노사분규의 빈번한 발생</li> <li>- 높은 토지 임대료(호치민, 동나이 등)</li> <li>-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음(호치민 인근)</li> </ul> |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투자지역으로서 남부와 북부 비교

| 시, 성 | 면적                   | 주요산업                 | 특징                                                                          | 주요 외국투자기업                                                                                  |
|------|----------------------|----------------------|-----------------------------------------------------------------------------|--------------------------------------------------------------------------------------------|
| 하노이  | 3,328km <sup>2</sup> | 유통, 서비스, 운송 제조 및 건설업 | 베트남의 수도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호치민에 비해 발전 수준은 떨어지나 최근 급속한 투자로 인해 수도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음 | 롯데(한국-부동산, 유통), 대우(한국-부동산), 경남(한국-부동산), 캐논(일본-프린터 제조), Panasonic(일본-가전 제조)                 |
| 박닌   | 823km <sup>2</sup>   | 전자                   | 수도 하노이 인접 도시로 삼성전자 및 협력사 투자로 인한 베트남 최대 전자 산업 클러스터 위치                        | 삼성전자(한국-휴대폰 제조), 삼성디스플레이(한국-패널), MS NOKIA(미국-휴대폰 제조), 오리온(한국-식품 제조)                        |
| 빈푹   | 1,235km <sup>2</sup> | 전자, 섬유업              | 공항에 인접 접근성 용이, 기존 봉제 섬유업종 분야에 삼성전자 협력사의 집중 투자지역. 일본 오토바이 제조공장 진출            | 대우버스(한국-버스 제조), 자화전자(한국-전자부품 제조), Honda(일본-오토바이 제조), 홍진크라운(한국-헬멧)                          |
| 하이퐁  | 1,561km <sup>2</sup> | 중공업 및 경공업, 선박 및 운송   | 베트남 제 3의 도시로 하노이와 함께 북부 지역 경제의 주축. 경제특구 위치. 최근 외국기업 집중 투자지역                 | LG전자(한국-전자), LG디스플레이(한국-패널), Fuji xerox(일본-전자), Bosch(독일-자동차부품), 포스코(한국-철강), 브리지스톤(일본-타이어) |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전망

부품소재 산업 지원정책을 활용한 투자인센티브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등 우수한 제조여건은 글로벌 부품 제조사에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베트남의 전자 산업은 미-중 무역전쟁의 수혜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9년 중국과 홍콩에서 이전하여 베트남에 신규 등록된 FDI 업체가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고 밝혔다. Apple, Nintendo 및 Dell등의 기업 역시 공급망의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Apple등의 주요 협력 기업인 Compal Electronics, GoerTek, HZO, Inventec, Luxshare Precision Industry, Pegatron, USI 및 Wistron은 베트남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나 진행중이다.





## 코참(KORCHAM)

### □ 코참 소개

지난 1992년 처음 설립된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이하 코참)는 비영리, 비정부, 비정치적인 조직으로 베트남 중북부진출 한국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입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9000여 개의 기업이 모두 코참의 준회원입니다. 코참은 회원사 및 진출기업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우리 기업의 선진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애썼으며, 더불어 베트남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가치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활동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정책이나 세법 관련 등 다양한 자료를 우리 기업들에 공유하며 베트남에서 어려움 없이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기관 및 정책결정 기관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개진하고, 회원사 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등 회원사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한-베 양국간 투자 및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하는데 코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 □ 주요 활동

코참은 그동안 기업간담회, 세미나, 사회공헌활동(CSR) 등 적극적인 대외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코로나 여파로 활동이 조금 위축된 점은 있지만 코참은 다양한 대외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베트남 총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베트남 대정부 활동에 보다 집중했습니다.

코참은 코로나 상황이 극심해지기 이전에는 각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초청, 시기적절한 주제로 포럼, 세미나와 워크숍, 초청간담회를 개최해 보다 전문화된 정보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회원사들과 진출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VBF(Vietnam Business Forum)과 같은 대규모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베트남 정부에 전달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코참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를 수시로 받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에 건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참의 운영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이들의 자문을 받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알려드리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참은 매년 <코참 디렉토리> 발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참 디렉토리>에는 베트남 중북부 지역에 위치한 베트남 진출 기업들의 정보를 담아 우리 기업인 여러분이 보다 편하게 기업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참 디렉토리>는 베트남 비즈니스에 필요한 안내서라고 볼 수 있는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면 코참 디렉토리 한 권은 반드시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에 진출한, 혹은 향후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인 여러분에게 인기가 높은 서적입니다. 코참에서는 매년 보다 정확한 기업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기업인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참에서는 매일 발행하는 웹신문 <코참데일리>를 통해 베트남에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코참데일리>에는 베트남 뉴스 뿐 아니라 법, 금융, 회계, 관세, 물류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칼럼 또한 연재하며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코참 정회원 안내

코참의 정회원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코참 행사, 세미나 등 관련행사 회원사 우선 초대 기회를 드리며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 혹은 외국 기업간 상호간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경영을 하려면 급변하는 정책 때문에 종종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정보 때문에 답답한 날들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코참에서는 회원사 여러분의 작은 애로사항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 <코참 문의>

전화: +84 (0)24 3555 3341 / 이메일: info3@korchamvietnam.com

홈페이지: <https://www.korchamvietnam.com/home>

공식채널: [https://pf.kakao.com/\\_iJtEs](https://pf.kakao.com/_iJtEs)



팜 밍 징 총리와 간담회



VBF(Vietnam Business Forum)



코참 운영위원회 회의



2021년 총회 및 경제 전망 세미나



## 고상구 회장의 베트남 비즈니스 이야기

### 3탄. 인삼왕의 탄생

K-MARKET 고상구 회장

#### 얼결에 인삼주를 팔게 된 이야기

내가 한국인삼으로 성공하게 될 수 있었던 아이템은 다양한 인삼 제품 중에서도 바로 인삼주였다. 그런데 사실 인삼주는 원래 판매하려고 준비한 상품이 아니었다. 인삼주를 구비한 이유는 다른데 있었다. STAR KOREA 매장에서 다양한 인삼 제품을 구비해서 판매를 하었는데 베트남 소비자 입장에서는 홍삼精이나 분말제품 혹은 가공제품 안에 과연 정말 인삼이 들어있기는 한 건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인삼 자체도 어떻게 생겼는지 생소하고, 당시 베트남 유통에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가 높지 않은 시절이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인삼 실물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삼주를 착안하게 되었다. 인삼주를 통해 한국인삼의 실물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각 매장에 인삼이 가득 들어간 인삼주를 전면에 배치했다. 홍보효과를 위해 인삼병 아래 받침대에는 용문양 등으로 아주 화려하게 목곽으로 장식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예쁜 병에 담았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다. 제품 구경을 하던 손님들이 인삼주를 가리키며 “저건 얼마냐”고 묻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저건 판매용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자 어차피 진열을 해 둔 것이니 가격표를 붙여서 가치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판매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판매해도 수량이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아 그렇다면 인삼주에 아예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이기로 했다. 인삼주가 비싸야 인삼제품이 귀한 식품이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 인삼주 하나에 2,000불 또는 3,000불이라고 써 붙인 것이다.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났다. 그 비싼 인삼주를 그것도 달러를 현찰로 가져와서 베트남 사람들이 신나게 사갔던 것이다. 그 용도는 거의 대부분 선물용이었다. 본인이 마시기보다는 귀한 손님에게 중요한 시기에 주는 그런 고급 용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이었다.

베트남 인삼주는 한국에서 가져온 인삼 2채를 베트남의 40도짜리 전통주로 담궈서 만든다. 인삼은 한국 술에 담으면 더운 베트남의 기후 때문에 상하기 쉽다.

요즘에는 교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만 ‘루머이(Lua Moi)’같은 좋은 술이 베트남에도 많다.



### 인삼으로 재기, ‘인삼왕’으로 불리다

그렇게 2003년부터 5년간 베트남 내에서 인삼주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으니 나는 완전히 재기할 수 있었다. 백화점 사업 실패로 날린 돈은 STAR KOREA를 시작한 후 단 2년만에 모두 회수했다.

말로 풀어놓으니 간단해 보이지만 나와 직원들은 끊임없이 개선점을 고민했고 SRAR KOREA만의 방식을 계속 고집했다. 프리미엄화와 고객편의성 제고가 그 핵심이었다. 지금은 인삼 비즈니스를 접은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동안 신세진 베트남 지인분들에게 가끔 인삼주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고는 하는데 선물 받으시는 분이 아직도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신다.

인삼주 사업은 계속 번창하여 전국 유명 대형마트, 주요 쇼핑센터 등 베트남 전역(호치민, 하노이, 하이즈엉, 남딩, 롱비엔 등)에 STAR KOREA 매장이 들어섰고 매장수가 총 40여개나 되었다. 새로운 쇼핑몰이 생길 때마다 고급 컨셉을 그대로 유지하여 입점하곤 했다.

하지만 나의 인삼사업은 점점 저물고 있었다. 2007년 무렵 인삼사업의 수익성을 노린 많은 사람들이 인삼사업에 뛰어들었다. STAR KOREA는 한국에서 컨테이너를 띄워 정식으로 통관을 하고 순도가 높은 질 좋은 인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후발주자들은 편법으로 비용을 줄이고 가격공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당시 인삼류에 대한 관세가 20~50%나 되었는데 베트남 사업자들은 한국을 다녀오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관세없이 물건을 조달하곤 했다. 심지어 한국발 비행기에 탑승하는 스튜어디스도 인삼을 사 온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업체수가 많아지고 다들 살아남기 위해 저가전략을 쓰면서 순도가 낮은 제품도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모로 시장이 혼탁해 졌다.

“이제 이 시장은 베트남 현지기업 위주의 시장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연한 순리일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내가 인삼사업을 접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STAR KOREA가 그동안 고급화에 집중해서 간신히 조성하였던 인삼의 프리미엄 이미지가 이후 저가경쟁으로 훼손되었던 것이 아쉽다. 저가경쟁이 품질경쟁력 저하로 또 크게는 한국인삼에 대한 신뢰하락까지 이어진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STAR KOREA 매장 및 실제 판매용 인삼주 사진



한국인삼 관련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고상구 회장



제 18차 세계한상대회에서 발표하는 고상구 회장

여담이지만 한국인삼의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더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문가 보다는 베트남 전문가가 이를 보증하는게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호치민이나 하노이의 유명대학 연구자 등과 컨퍼런스 등을 열어 인삼의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STAR KOREA는 이러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하노이 대우 호텔 등에 초대를 하여 한국인삼 알리기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하면서 한국인삼의 우수성을 알려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느낀다.

### 우리 상품을 이왕 팔려면 최고의 제품을 팔아야....

최근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한국기업제품을 소개하는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다. 그런데 몇몇 기관에서 개최하는 시장개척단, 판촉전 등의 행사를 가보면 순도 낮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품들이 꽤나 보인다. 해외에 나가 시장을 개척하는 행위는 일종의 국위선양 활동인데 좋지 않은 제품을 소개하면 오히려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두렵다. 외국에 수출하는 제품, 특히 건강식품류는 철저히 선별된 제품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2019년 여수에서 개최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때 이야기다. 내가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직을 맡고 있을 때였다. 나는 당시 관련 지자체장에게 “수출품목은 절대 선별 해야한다. 관계로 인해서 수출지원 업체로 선정하지 말아 달라. 세계 여러 바이어들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는 물건들이 나가야하는 것 아니냐. 특히나 자격도 미달되고 품질도 미달되는 상품들은 절대 수출하면 안 된다. 이건 시장 개척이 아니라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이다.”라고 강변한 적이 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다.

문제는 몇몇의 미선정 업체가 관련 정부나 기관에 민원을 넣는다는 것이다. 민원에 민감한 기관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엄격한 기준, 즉 물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홍삼의 경우 성분분석표, 증명서(Certificate),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식품 인증허가증 등의 자료를 갖춘 업체만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다음호에 4탄이 이어집니다>



## 2021년 베트남 물류 산업 보고서

코트라(KOREA DESK)에서는 2021년 베트남 물류 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베트남비즈니스뉴스에서는 동 보고서의 **핵심 요약**만 게재하였으며, 보고서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물류 산업 – 1. 성장 잠재력

1. '15~'18년간 연평균 14.42% 성장한 베트남 물류 산업은 코로나로 인한 '19, '20년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향후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2. 2020년 베트남의 GDP 대비 물류비용 비중은 여전히 20% 이상으로 역내 및 전세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임.
3. 2021년 9개월간의 물동량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작년 동기 대비 5.61% 감소함.
4. 도로 화물은 다른 운송수단 대비 높은 비용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우선 운송 수단임.
5. 철도 화물은 자체적 낙후로 인해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하여 시장 점유율을 점차 잃어가고 있음.

2020년 물류 산업 내  
베트남 기업의 총 매출

232억 9천만 달러(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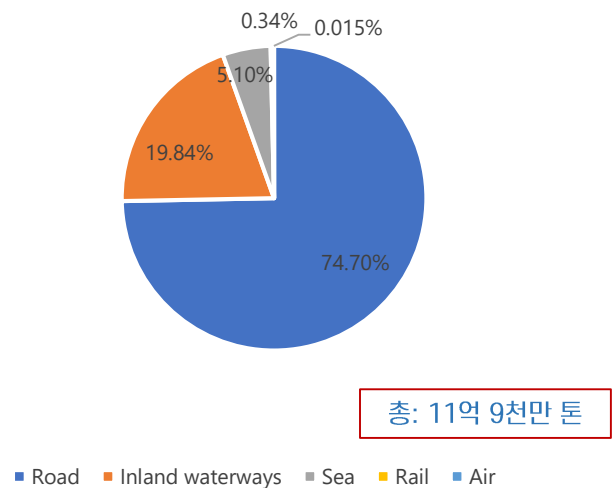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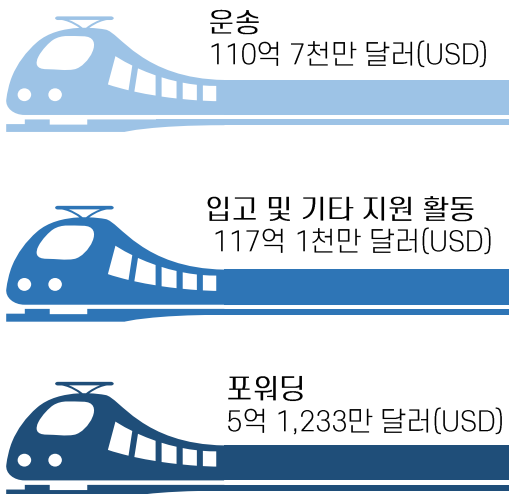


## 베트남 물류 산업 – 2. 기회 요인

1. 해상 화물 수요는 여전히 높으며, 베트남의 긴 해안선과 전략적·지리적 입지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베트남의 내륙 수로 운송은 2030년에 7억 1,5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콜드 체인 부문은 기업 수에서 수요처가 공급처의 8배에 달하는 수요 초과 상태임.
4.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 이후 물류 산업, 특히 해외 해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임.
5. 최근 몇년간 Samsung SDS, Pantos, CJ GLS 등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베트남 물류 시장에 진출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음.

물류 산업 내 베트남 기업의 총 매출, 2020년

운송 수단별 물동량 비율, 9M/2021





## 베트남 물류 사업 – 1. SWOT

- 매출 기준으로 베트남의 주요 물류 기업은 대부분 정부소유 국영 기업(SOE)임.
- 강점: 높은 수요에 힘입어 강한 성장 중(국내부문)이며, 지리적인 이점을 보유.
- 약점: 운송수단간의 연결성 부족, 노하우 및 기술 적용의 한계, 낙후된 창고 시스템 등
- 기회: 자유무역협정 체결, 미·중 무역전쟁관련 이전 수요 多
- 위협: 높은 경쟁, 낙후된 인프라로 초래되는 지체에 대한 부정적 평판, 동기화된 가이드라인 적용 관리 부족 등

## 베트남 물류 사업 – 2. 도전과제

1

기반시설과 입지 우위의 산업단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교통 혼잡, 높은 물류비, 양질의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2

비동기식 개발은 전체적으로 물류 산업과 특히 산업 단지에 일반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3

베트남 정부는 물류 센터 및 ICD 항만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4

베트남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해상 운송 및 지원 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외국 물류 업체의 협업 환경 – 진출 전략

1

베트남의 물류 산업은 지리적 이점, 정부의 지원, 국내 기업의 낮은 경쟁력 등 외국기업 진출에 매력적입니다.

2

베트남 물류 산업의 세 부문 모두 수요 증가와 최근 체결된 무역 협정 덕분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베트남 콜드 체인의 큰 수요와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4

물류 산업이 조건부 비즈니스 투자 목록에서 제외되고 베트남 기업의 재정·기술 부족은 협업 가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5

M&A 프로젝트가 신규 진출 기회보다 약 4배 가까이 많기에 그린필드 투자보다 M&A 기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한국의 잘 발달된 물류 산업, 친환경 물류 경험과 문화적 이점은 베트남 물류 산업 진출 시 이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베트남 물류 산업 보고서

KOTRA 하노이무역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클릭시 해당 안내글로 이동합니다.

원문 링크



## 2022년 베트남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신한은행 IPS그룹 투자자산전략부

### 1. 베트남 경제 Overview

2021년 신임 지도부 출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4차 확산 여파로 3분기 사상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상반기 베트남 경제는 백신 확보가 선행된 선진국 수요 회복으로 GDP 성장률 5.6%(1Q 4.7%, 2Q 6.6%)의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4월말 시작된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 여파가 확대되며 3분기 -6.2% 성장률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10월부터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단계적 봉쇄 완화 시행되며 4분기 경기 반등 기대감이 높아졌고 2021년 성장률은 3.8%를 예상한다.

2022년에는 봉쇄에서 벗어나며 코로나 19 이전의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리오프닝 효과가 확대되며 코로나 19 이전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 성장률은 6.6%로 추정된다. 베트남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호치민 등 주요 경제 중심지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 내수 회복에는 긍정적이다. 정부 재정지출 확대 및 관광 재개 움직임 등도 경제 회복에 긍정적이다.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동향]

'21.11월 기준

| 주요 지표        | 2018 | 2019 | 2020 | 2021(E) | 2022(F) |
|--------------|------|------|------|---------|---------|
| 실질GDP(YoY%)  | 7.2  | 7.2  | 2.9  | 3.8     | 6.6     |
| CPI(YoY%)    | 3.5  | 2.8  | 3.2  | 2.0     | 2.3     |
| 경상수지(GDP대비%) | 1.9  | 3.8  | 3.7  | 1.8     | 3.2     |

※ 추정치(E) : Estimate, 예측치(F) : Forecast / 자료 : World Bank, IPS전략부

### 2. 2021년 베트남 경제 리뷰

정치적 안정을 선택한 모범 방역국 베트남은 선진국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수출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를 실현하였다. 2021년 초 제13차 전당대회에서 서열 1~2위 (서기장, 국가 주석)가 연임에 성공하며 변화보다는 정치적 안정을 선택하였고, '성장과 방역' 동시 달성(Dual Target)을 통한 '2021년 경제성장률 회복 (6~6.5%)'이 베트남 신임지도부의 목표였다. 백신 확보가 선행된 미국, EU 등 일부 선진국의 수요 회복으로 베트남의 제조업 및 수출 경기는 개선되는 듯 보였다. (1H, YoY: 제조업 생산 +12%, 수출 +28%)



그러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강력한 봉쇄 조치로 3분기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백신 확보 난항으로 물리적 봉쇄에 집중한 베트남은 코로가 19 4차 확산으로 경제 중심지 호치민 시 등 남부 지역에 최고 수준의 봉쇄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베트남 경제는 3분기 GDP 성장률(-6.2%, YoY)이 2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경제 침체를 기록하게 되었다.

인구 밀집 지역이자 경제 중심지인 남부에 집중된 코로나 19 4차 확산 여파로 소비 및 생산 등 실물 경기가 급랭되었다.

호치민시(공식 인구 880만명, 추정 인구 1,300만명) 등 남부의 이동 제한 및 산업단지 봉쇄로 3분기 소비 및 생산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YoY : 소비판매 -29.3%, 산업생산 -4.4%, 제조업 -4.6%)

7월 이후 섬유 의류 공장의 35%가 폐업을 하였으며 피해가 컸던 남부지역 공급망의 90%가 마비되어 3분기 실업률은 3.7%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현재 베트남은 단계적 봉쇄조치 완화(With Corona)를 통해 코로나와의 공생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시행되었던 호치민시는 10월 1일부터 단계별 봉쇄조치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11월부터 3단계 로드맵에 따라 푸꾸옥, 다낭, 냐짱, 호이안, 하롱베이 등을 우선 개방하여 외국인 관광을 재개하며 4분기 관광 산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 3. 2022년 주요 이슈

#### (1) 베트남의 새로운 도전 '위드 코로나(With Corona)'

2022년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상화 (With Corona & Vaccination)가 내부 회복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내수 비중이 GDP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은 내부 회복이 경기 정상화의 핵심으로 2022년 소비지출은 + 3.5%(YoY) 전망이다.

전세계 39%, 아시아 43%, 베트남 25%('21년 10월 31일 기준) 등 저조한 백신 접종 완료율은 단계적 봉쇄 완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겠지만 인구 및 산업 단지 밀집 지역인 호치민 시 등 주요 경제 중심지의 높은 백신 접종률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키고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진행될 베트남 관광 재개는 내부 반등을 위한 제2의 동력이다.

약 6개월간 4만여명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11월 푸꾸옥 섬 여행 시범을 허용하였고 이는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GDP의 10%에 해당하는 관광의 재개는 내수와 영세 가족 사업 및 개인 사업체 (GDP 기여도 30%)간 선순환을 촉진시켜 경기 회복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베트남의 신성장 동력 ‘디지털 경제’ 활성화

코로나 19로 활성화된 전자결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며 베트남 경제를 견인할 것이다.

베트남 전자결제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는 2025년까지 현금 사용률을 8%미만으로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자결제 저변 확대되며 모바일 결제 이용자 수 세계 3위, ‘21년 개인 금융계좌 보유 비율 70%로 확대 등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베트남은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 비중을 GDP의 20%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 디지털 경제 개발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여 현재 GDP의 8.2%에 해당하는 디지털 경제 비중을 2025년에는 20%, 2030년에는 30%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의 인터넷 경제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29% 성장하여 520억불을 기록할 전망이다.

## (3)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반사이익’ 확대 기대감

코로나 19 대응으로 지체되었던 미국의 CPTPP 재가입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2017년 1월 TPP 탈퇴하였지만 2020년 11월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FTA RCEP가 타결되고 2021년 9월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을 발단으로 대중 견제 및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한 미국의 CPTPP 재가입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이자 FTA 미체결국인 미국의 CPTPP 재가입은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이다.

대외 의존도(200%)가 높은 베트남의 경제구조와 높은 대미 수출 비중 등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FTA 체결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CPTPP가 베트남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경제 효과는 2030년까지 GDP 최대 +3.5%, 수출 +4.2%, 수입 +5.2%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의 FTA체결은 대미 관세 인하 효과도 있어 GVC 재편 및 FDI 유입 등에서 베트남 수혜 확대가 기대된다.

## (4)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정부에서 발표한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 2017~2020’은 코로나 19 확산 및 2021년 지도부 교체를 앞둔 부담감 등의 원인으로 지연되어 128개(‘17~20년 목표) 기업 중 39개만이 민영화 완료되었으며 89개는 올해 안에 민영화 예정이었으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신임 지도부 교체 이후 2021~25년 기간 국영기업 민영화 촉진 정책(Decision No. 22/2021/QĐ-TTg., ‘21년 8월)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FTA(CPTPP, EVFTA 등) 합의 내용에 따라 국영기업 비중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어 민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4. 2022년 베트남 경제 전망 : '수출 제조업' 개선은 베트남 경제 회복의 마중물

대외 수요 회복에 힘입은 수출 제조업의 긍정적 성장은 전망되나, 인플레이션 우려 등 대외 리스크는 변수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 이행에 따른 대외 수요 회복으로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며 적극적 FTA체결 (53개국과 협약 체결)을 통한 교역 상대국 다변화 및 FDI의 꾸준한 유입도 수출 제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 및 미 연준의 조기 긴축,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 등 상존하는 대외 리스크는 변수이다.

또한 꾸준한 FDI 유입은 수출과 제조업 경기를 지지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코로나 19 4차 확산에 따른 봉쇄 및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GVC에서의 위치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Three on Spot (공장에서 먹고 자고 생산하는) 정책과 산업단지 근로자 우선 백신 접종 등 위기 대응 체계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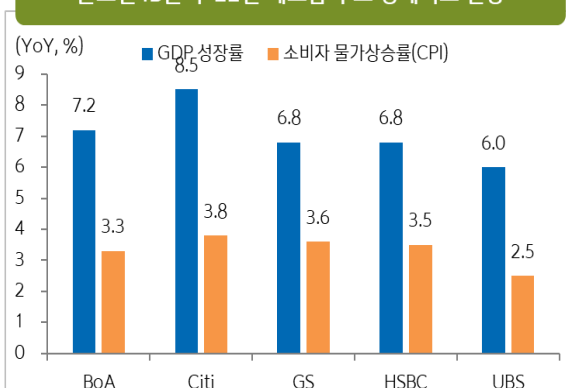
2022년 베트남 경제는 봉쇄에서 벗어나며 6~7%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턴어라운드 본격화되며 'V자 회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 경제 운용방향을 '코로나 19 통제 및 경제성장 유지'라는 이중 목표에 집중하고 GDP 성장률 목표 6.0~6.5%, 재정적자 GDP 4%, 소비자 물가지수(CPI) 4%이내로 설정하여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경제 중심지의 높은 백신 접종률, 대외 수요 회복, '21년 기저효과 등 감안 시 6% 이상의 경제 성장률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한 성장을 뒷받침 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도 적극적이다. 정부는 향후 2년간 1,200조 동 (\$522억) 집행 계획을 세우고 관광 활성화, 내수 진작, 관세·자동차세 등 감면, 기업 DT 지원, FDI유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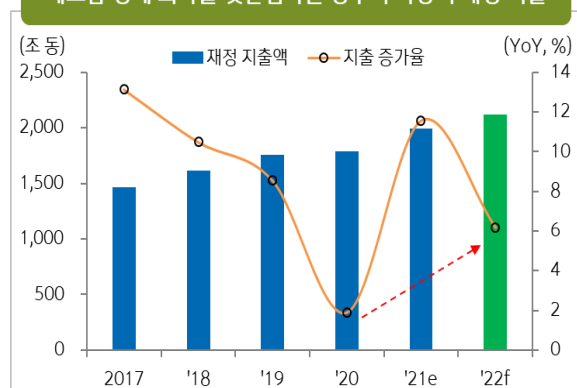
또한 '22년 2분기 외국인 관광 전면 개방 등 3단계 외국인 관광 재개를 통해 GDP 비중의 약 10%를 차지하는 관광업 활성화를 통해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글로벌 IB들의 '22년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전망



※ '21.10월 말 기준, 주요 기관 평균 GDP 성장률 7.1%, CPI 상승률 3.3%  
자료: 국제금융센터, IPS전략부

베트남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지출



※ '21년은 추정치(e: estimate), '22년은 예상치(f: forecast)  
자료: Trading Economics, IPS전략부



## 5. 금리 :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며 완만한 반등 시도

2021년은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전반적인 하락세가 유지되었다.

국채금리, 중앙은행(SBV)의 완화적 통화 정책의 영향으로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코로나 19 4차 확산에 따른 내수 위축 및 물가 둔화(1~10월 누적 1.8%, YoY)로 SBV의 저금리 통화 정책이 지속되었고,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글로벌 인플레이 우려에도 4차 확산에 따른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는 국내 물가 상승을 억제하였다. 또한 베트남 10년 국채 금리는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하락하여 2021년 9월 15일 기준 2.07%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위축된 베트남 회사채 발행 및 꾸준한 채권 수요에 따른 수급 불균형도 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20년 9월 연간 최대 2회 채권발행만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회사채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들의 채권 발행은 위축되었고, 채권 공급(발행)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의 예금 금리 하락에 따른 꾸준한 채권 수요는 금리에 부담이 되었다.

2022년에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며 완만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단계적 봉쇄 완화 정책에 따른 내수 경기 회복으로 물가상승률도 반등할 전망이다. ('22년 물가상승률 추정치 +3.2%, YoY) 경기 및 수요 회복에 따른 신용성장률(Credit Growth)증가도 금리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5개년('21~25년) 사회 경제·개발 계획 달성을 위한 신임 지도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증가도 기대된다.

다만, 중앙은행(SBV)의 경기 부양을 위한 대출 금리 인하 정책 등의 영향에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금리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국채 10년 2.0~2.5)

## 6. 환율 : 완만한 동화 강세 이어지겠으나 강세 폭은 제한적

'21년 동화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베트남 경제 악화에도 강세를 지속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코로나 4차 확산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5 중 유일하게 연초 대비 1.7%절상되었다. (인니 -1%, 태국 -11%, 필리핀 -5%, 말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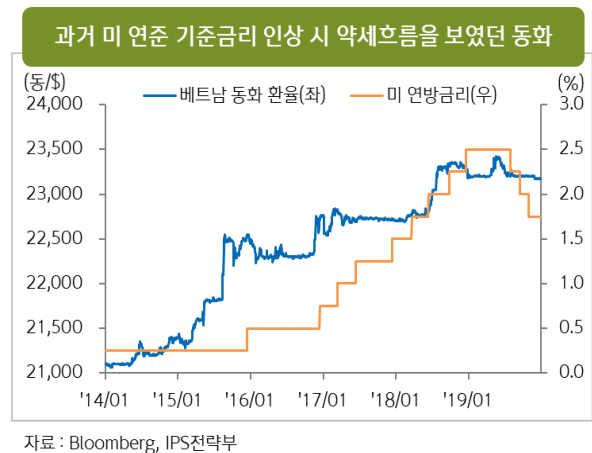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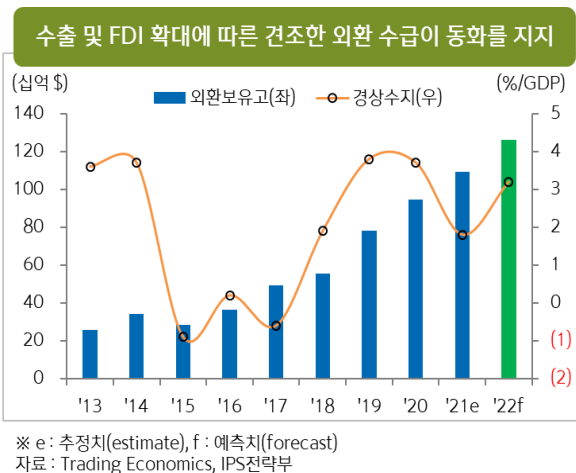
미 재무부와 통화 관행 합의에 따른 중앙은행(SBV)의 동화 강세 용인 영향에 동화 강세는 가속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환율 조작국('20.12월)으로 지정된 이후,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되었으나 심층분석국으로 재지정('21.4월)되었고, 심층분석국 지정 이후 미 재무부와 통화 관행 합의('21.7월)에 따른 중앙은행(SBV) 동화 강세에 대해 용인되었다.

2022년 환율은 안정적 매크로 환경이 이어지며 완만한 동화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2년 경상수지 (GDP 3.2%) 및 외환 보유고(\$1,259, +15%/YoY)를 통해 수출 및 FDI 확대에 따른 견조한 외환 수급이 동화를 지지하고 물가 안정(4%이하 유지) 및 내수 촉진,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과의 합의 준수 등 SBV의 통화 강세 용인 기조도 지속될 예정이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되며 추가 강세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USD/VND : 22,500~23,000) 미 연준의 조기 긴축 (금리 인상)을 둘러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통화의 추가강세 제한될 전망으로 11월 미 FOMC에서 테이퍼링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22년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 7. 주식 : 명암이 혼재된 가운데 하반기 상승 압력 둔화 전망

베트남 주식시장은 지속되는 대내외 리스크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속되는 외국인 순매도에도 국내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견인하며 사상 처음으로 1,400pt를 상회하였다. VN지수는 연초 이후 30% 상승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1,467pt, 11/8)하였고, 금융, 부동산, 소재 등 경기 회복 수혜주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외국인의 급격한 증시 이탈 (누적 순매도 \$22.6억, 11/9)에도 개인의 풍부한 유동성이 이를 상쇄하며 증시를 견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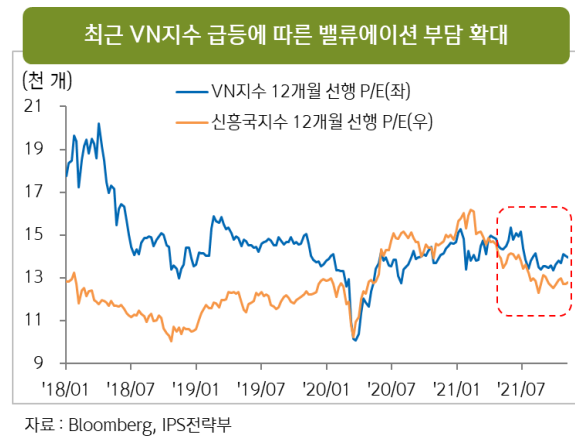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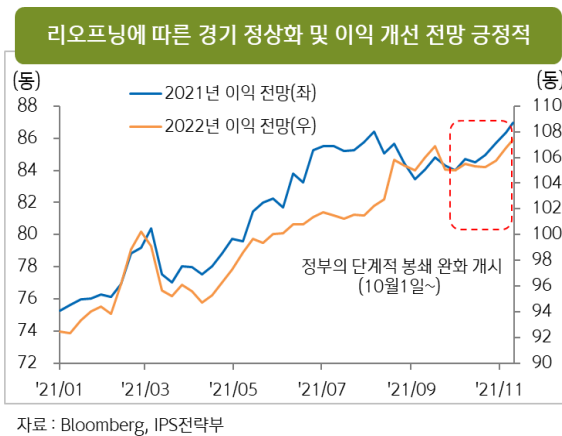
그러나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베트남 주요 지역 봉쇄, 미 연준 테이퍼링, 중국발 리스크 등 대내외 불안요인은 지속되고 있다. 4차 확산 및 최고 수준의 봉쇄 조치가 이행되며 ‘21년 7월 VN지수는 10%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0월부터는 봉쇄 완화 및 경기 회복기대감에 반등을 하고 있다. 또한 미 연준의 테이퍼링, 공산당의 기업 제재, 헝타 그룹 위기, 전력난 등 중국발 리스크 등 G2를 중심으로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은 리오프닝에 따른 경제 회복 기대감(明)과 미 연준의 조기 긴축 발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暗)이 혼재 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 및 수출 제조업 개선에 따른 경기 정상화 및 이익 개선('22년 순이익 증가율 : +17.7%, YoY) 등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며 정부는 백신 재원을 확보하여 (26.8조 동, 10/22 기준 국민 70% 2회 접종 물량 확보)

백신 접종이 확대되며 더 이상 봉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개선 및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에 따른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이고, 연초 대비 +30% 증가한 VN지수의 상승률은(신흥국 지수 상승률 -1.4%) 최근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을 확대시키고 있다.

2022년 주식시장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전망이며, 하반기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되며 하방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VN 지수 : 1,200~1,600pt)



<끝>



## 베트남 현지법인 근로자 일방해고 절차 및 유의사항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모의사례)** 甲사는 베트남 H시 소재한 한국투자법인이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온 바, 그동안 현지 채용한 한국인 법인장 丁을 두고 로컬직원들을 관리 하에 현지 영업활동을 하였다. 실제 오너인 丙은 한국 본사법인 대표이사이다. 丙은 그동안 丁을 신뢰 하에 베트남 현지법인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온 바, 최근 현지법인 소속 로컬직원의 제보 전까지 甲사의 분식회계 및 丁의 잠재적 횡령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상호간 연쟁이 있은 후, 丁은 일방적으로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으나, 출근은 중단한 몇일 후 丁은 甲사를 방문하여 법인공금을 무단 인출한 후 귀가하였다. 이를 보고 받은 丙은 丁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丁은 본인이 투자한 투자금 및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면서,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함을 항변하였다.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 상황에서 丙은 丁에 대한 적법해고 및 노무조치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질의하였다.

**(법무법인 답변)** 베트남 현지 노동법상 소속 근로자 해고에 필요한 해고 절차(무단결근) 준수를 위한 절차 및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 1. 기 체결 노동계약서의 해지

甲사는 丁과 기 체결한 노동계약서의 적법한 해고를 위한 현지 노동법규상 해지 사유(2019년 제정 노동법 제36.1조 e항 의거)가 요망되는 바, 甲사의 진술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장 명확한 일방 해지 사유 중 하나인, 근로자의 5영업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에 해당되는 경우(동법 제125.4조에 의거)로, 甲사는 丁에 대하여 노동계약서 해지 합의서, 해지 동의서 등 별도의 서면상 상호 계약 해지 합의 근거 부재함에도 기 체결 노동계약서의 일방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甲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의 丁을 현지법상 적법 해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가 준수되도록 대비할 수 있다.



1단계: 丁과 관련 최소 5영업일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 서면 기록을 작성하여 증거 입증자료 목적으로 사내 보관 비치하도록 한다.

2단계: 丁에 대하여 甲사의 노동계약서 일방 해지 결정문의 통지 (5영업일 후 6일차 되는 날(이하 “노동계약서 해지일”) 해지결정문 발송하도록 한다.

3단계: 노동계약서 해지일로부터 5영업일에서 14영업일 사이에 甲사는 丁에 대한 지급 의무가 존재하는 급여에 대한 정산 내역을 포함한 금전 정산 회의록(minute)을 작성하도록 한다. 甲사의 진술에 의하면, 甲사는 丁의 급여 전액을 정히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丁은 별도의 퇴직금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와 같은 급여 및 퇴직금 이외에 甲사 및 丁간에 지급 정산 의무가 존재하는 금전 내역에 대하여 해당 정산 회의록에 명확하게 명시가 요망된다. 나아가, 丁의 경우, 그간 회사와 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회의록 작성 시점에 회사 출석 개연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丁의 불참에 대비하여 반드시 별도의 증인(회사 소속 타 직원 무방) 입회 하에 작성이 권고된다고 할 수 있다. 丁의 회의록 작성 불참 시 甲사 직원 증인 입회 하에 더 이상 甲사와 丁사이에 잔존하는 금전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해당 정산 회의록 원본 2부 작성 후 증인 서명 및 甲사 법인장(법적대표자) 서명 및 법인인감 날인 후 원본 1부는 사내 보관 및 나머지 원본 1부는 丁의 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도록 한다. 우편 발송 시 발송 내역 자료 보관하도록 하며, 가급적 수취인 서명 하에 송달되는 우편 배송 서비스를 이용 하에 수취인 수취 여부를 기록 보관하여 추후 당국 내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 사용에 대비하도록 한다.

4단계: 노동계약서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甲사는 베트남 관할 노동청(DOLISA)에 丁의 노동허가 철회를 신고하도록 한다. 해당 신고서류는 丁이 노동계약 해지 통보 후 자발적으로 노동허가를 반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는 바, 주의를 요한다.

## 2. 기타 서류 준비

### 2.1. 丁의 무단 결근 기록

甲사는 丁의 무단 결근일 최소 5영업일 이상을 명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해당 결근일자는 주말을 제외하여야 하며, 사회적 거리 시행 기간은 배제하여야 하는 점에 주의가 요망된다.



## 2.2. 甲사의 노동계약서 해지 결정문

해당 노동계약서 해지 결정문에 대한 甲사의 서명 날인일은 丁의 무단결근 연속 5일이 있는 후 6일째 되는 날에 작성되도록 한다. 작성 및 서명날인 후 원본 1부는 사내 보관 비치하도록 하며, 원본 1부는 해지 통보서와 함께 丁에 대하여 발송하도록 한다.

## 2.3. 노동계약서 일방 해지 통보

丁의 노동계약서 해지 통지서는 해지 결정문이 있는 결정 당일에 발송되도록 한다. 해지 결정문 원본 1부는 해당 해지 통지서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함 또한 주지하는 것이 권고된다.

베트남 내 근로자의 비위 또는 귀책으로 노동계약의 중단 및 해지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사유 및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입증책임에 대하여 유의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입증이 곧바로 어려울 경우, 적법 해고 사유를 검토하여 추후 노무 당국 조사 및 법적 공방 시에 대비하여 정당한 해고임을 입증할 사내 서류 준비 및 관련 절차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절차는 서류로 시작되어 서류로 끝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하며, 반드시 베트남 현지법률에 따른 철저한 서류 작성을 통한 준비가 필요하다. 베트남 현지 에 법무법인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채 유사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일부 경영컨설팅업체 및 이와 같은 비법무법인 소속의 무자격 변호사 사칭업체를 주의하도록 하며, 반드시 검증된 법무법인의 다양한 케이스 해결 노하우를 통한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면밀한 현지법상 노무대응이 권장된다. <끝>



## HOPE IS NOWHERE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작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기나긴 상황에 지치고 실패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쳤다'는 노력한 증거이고, 또한 '실패했다'는 도전한 증거 아닐까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칼럼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업무를 하며 겪은 몇 가지 에피소드를 공유합니다.

## 1.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서로 모르는 여러 의뢰인이 같은 사안으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다. 그중 베트남 지인의 땅에 공장을 신축한 후 쫓겨난 홍OO 씨가 생각난다.

한국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홍OO 씨는 10여 년 전 베트남에 여행을 왔다가 베트남인 뚜안(가명) 씨를 알게 되었다. 그 후 뚜안 씨 집에서 식사도 하는 등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 홍OO 씨는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뚜안 씨에게도 혹시 좋은 부지를 알면 소개해달라고 했다. 뚜안 씨는 마침 본인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어차피 노는 땅이니 그냥 사용하고, 나중에 베트남에서 사업이 잘되면 그때 보답하라고 하였다. 홍OO 씨는 뚜안 씨와 의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임대료 조의 금액을 지불할 생각을 하고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홍OO 씨가 공장을 신축하고 나니 뚜안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뚜안 씨는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냐며 공장문을 걸어 잠그고,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여러 투자자를 알아보기까지 하고 있었다. 나중에 그 공장을 사려는 다른 한국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이 땅은 심지어 은행 담보로 잡혀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토지사용권 증서 원본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뚜안 씨는 은행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원본 토지사용권 증서를 하루 동안 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기 행각을 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다 보니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 특히 토지와 관련한 거래를 할 때는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 2. 친구와 계약서

꼬깃꼬깃한 달러를 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15년 지기 친구가 일시적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 전 재산을 빌려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던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다. 알아보니 친구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려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친구는 네가 ‘투자’한 돈은 모두 날렸다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한다. 전 재산을 잃고, 돈을 받기 위해 베트남에서 와서 친구를 찾고, 돈이 떨어지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리운전을 하여 돈을 모아 또 베트남으로 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친구가 만나주지도 않아 친구의 공장 한구석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며칠씩 친구를 기다린 것도 부지기수였다. 친한 사이라서 그 흔한 차용증도 없었고 증거자료도 전혀 없는, 법적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어깨가 축 늘어진 그분을 통해 친한 사이일수록 계약을 꼭 작성하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폭탄 돌리기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의 실사를 한 적이 있다. 대상 부지는 위치도 좋고, 가격도 근방의 비슷한 부지에 비해 저렴했다. 게다가 건설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이미 취득한 상태라서 프로젝트를 인수한 후 바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군인들이 오고 가는 군부대 내에 위치한 회사를 보니 일단 국방부 소유의 부동산 프로젝트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브로커를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다. 그는 예전에 다른 건물 거래에서 베트남어를 모르는 한국 투자자에게 그 건물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정부의 허가 서류라고 보여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왠지 느낌이 안 좋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모든 허가를 취득했다며 그가 내민 베트남어 서류는 원래 군인 화장터로 계획되었던 토지의 용도를 상업 용도로 변경 신청하는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로, 부족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토지사용권자의 이름도 달라 프로젝트 진행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브로커에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래 구도임을 지적하자 얼버무리는데 뻔뻔하기 그지 없었다.

해당 토지가 화장터 부지임을 알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심리적인 이유로 그 땅을 꺼리는 상황이었다. 이런 곳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 사실 시세도 의미가 없다. 그 후로도 이 브로커는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아 여러 명의 한국분들과 동일 건으로 상담을 했었다. 여러 회사의 직함으로 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순진한 한국인을 상대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도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치료제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은 if가 아닌 when입니다. 그때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기회에 도전하시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HOPEISNOWHERE를 HOPE/IS/NO/WHERE로 볼지 HOPE/IS/NOW/HERE로 볼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습니다. 2021년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 - 하이즈엉성

### □ 하이즈엉(Hai Duong)성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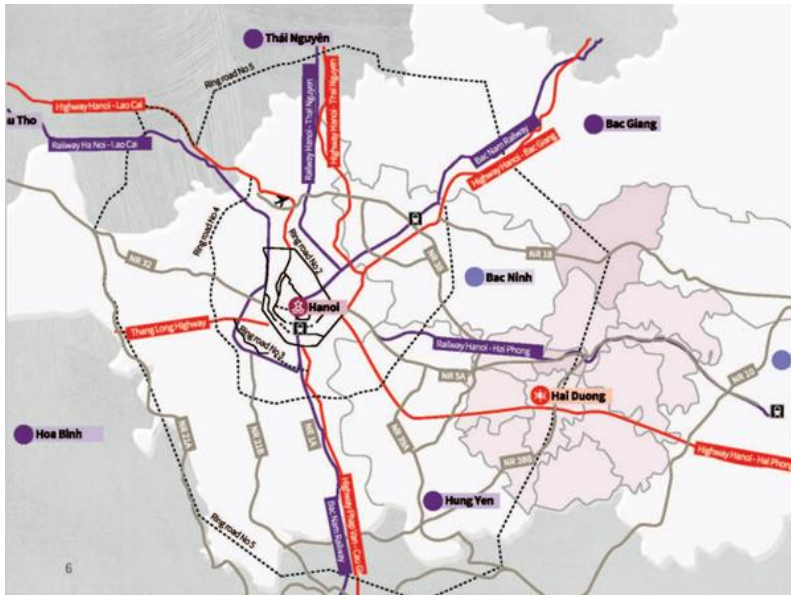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면적-인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 1,668.39km<sup>2</sup>    ▪ 인구: 1,916,700명('20년)</li> <li>도시거주 비율: 32.2%('19년)</li> </ul>                                                                                                                                                                                                                 |
| 지정학적 위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즈엉성은 홍강 삼각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하노이 수도와 홍강 삼각주의 연해지역 간의 환송지로 경제와 무역 교류의 중심지임.</li> <li>북쪽으로는 박장(Bac Giang)성, 동쪽으로는 꽝닌(Quang Ninh)성 및 하이퐁(Hai Phong)시, 서쪽으로는 박닌(Bac Ninh)성 및 흥옌(Hung Yen)성, 남쪽으로는 타이 빈(Thai Binh)성과 인접해 있음.</li> <li>하노이-박닌-하이즈엉-하이퐁-꽝닌 5개성의 경제 개발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어 경제 회랑을 형성함.</li> </ul>         |
|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즈엉성은 북부 주요 경제 지역의 주요 교통축에 위치해 있으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노이바이(Noi Bai)-하롱(Ha Long) 고속도로, 18번 국도 및 5번 국도는 하이즈엉성을 관통함.</li> <li>37번 국도 및 38번 국도는 하이즈엉성을 관통하여 북부 산악·고원지대와 북부 연해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임.</li> </ul>                                                                                                            |
| GRDP 성장률 / 1인당 GD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대비 GDP 성장률: 2.1% ('20년)</li> <li>성 1인당 GDP: US 3,020 달러/년 ('19년)</li> </ul>                                                                                                                                                                                                                                 |
|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수출액: US 77.6억 달러 / 총 수입액: US 60억 달러('20년)</li> <li>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1.9%), 서비스업(6.7%), 농수산업(-3.1%)('19년)</li> </ul>                                                                                                                                                                                         |
| 산업구조('19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업/건설업: 59.7%, 서비스업: 31.5%, 농수산업: 8.8%</li> </ul>                                                                                                                                                                                                                                                             |
| 노무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내 노동가능연령 인구비율: 68.4%('19년)</li> <li>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비율: 24%('20년)</li> </ul>                                                                                                                                                                                                                                |
| 최저임금('21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즈엉시: VND 3,920,000 = US 171 달러(2급지)</li> <li>껀장(Cam Giang)현, 남쌍(Nam Sach)현, 킴타잉(Kim Thanh)현, 삨몬(Kinh Mon)현, 자록(Gia Loc)현, 빈장(Binh Giang)현, 뜨기(Tu Ky)현: VND 3,430,000 = US 150 달러(3급지)</li> <li>찌링(Chi Linh)시, 타잉하(Thanh Ha)현, 타잉미옌(Thanh Mien)현, 닌장(Ninh Giang)현: VND 3,070,000 = US 134 달러(4급지)</li> </ul> |
| 외국인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즈엉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88억 달러('20.12월 기준)</li> <li>(한국) 총 133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US 12.87억 달러를 투자함.</li> <li>한국은 하이즈엉성에 투자한 26개 국가 중 투자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1위이며 투자 금액 기준으로 3위('21.8월 기준)</li> </ul>                                                                                                                               |



## □ 투자환경

### ○ 공급체인 연결에 유리한 교통 시스템

하이즈엉성의 지리적 위치는 가공·자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한 화물 운송 수단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최적화하기에 유리한 조건임.



#### - (도로) 주요 거점까지의 거리:

| 고속도로           | 꽝닌성 34km               | 하이퐁시 45km              | 박닌성 48km          | 하노이시 57km |
|----------------|------------------------|------------------------|-------------------|-----------|
| 공항             | 갓비(Cat Bi) 45km        | 노이바이(Noi Bai) 73km     | 반동(Van Don) 114km |           |
| 항구             | 딘부(Dinh Vu) 46km       | 하이퐁 48km               | 탄부(Tan Vu) 72km   |           |
| 베-중 국경<br>(관문) | 휴응이(Huu Nghi)<br>170km | 몽가이(Mong Cai)<br>266km |                   |           |

- (내륙수로) 500톤 이상 선박의 이동을 수용할 수 있는 400km 이상의 수로가 있음

- (철도) 2개의 주요 철도 노선이 있음:

하노이시 - 흥옌성 - 하이즈엉성 - 하이퐁시

하노이시 - 박닌성 - 하이즈엉성 - 꽝닌성

### ○ 관광 및 천연 자원

**(관광)** 하이즈엉성은 1,907개의 역사·문화적 유적(97개의 국가인정 유적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적수 기준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함. 유적과 명승지들은 주요 두개의 관광 클러스터 1) 꼰손(Con Son)-끼엵박(Kiep Bac) 2) 안푸(An Phu)-킨추(Kinh Chu)에 모여있음. 주요 명승지로는 꼰손 파고다, 끼엵박 사원, 찐리에우(Tran Lieu) 사원, 찐흥다오(Tran Hung Dao) 기념비, 안푸 사원, 킨추 동굴, 반미에우(Van Mieu) 유적지 등이 있음.



## (천연 자원)

시멘트 석회석: 매장량 2억 톤, 탄산나트륨( $\text{CaCO}_3$ ) 함량 90~97%, 50~70년 동안 연간 400만~50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음.

- 고령토: 매장량 40만톤, 산화철( $\text{Fe}_2\text{O}_3$ ) 함량 0.8~1.7%, 산화알루미늄( $\text{Al}_2\text{O}_3$ ) 함량 17~19%, 도자기 생산 위한 원료 공급원
- 내화 점토: 매장량 800만톤, 고품질, 산화알루미늄( $\text{Al}_2\text{O}_3$ ) 함량 23.5~28%, 산화철( $\text{Fe}_2\text{O}_3$ ) 함량 1.2~1.9%, 내화 벽돌 생산 위한 원료 공급원
- 보크사이트: 매장량 20만톤, 산화알루미늄( $\text{Al}_2\text{O}_3$ ) 함량 46.9~52.4%, 산화철( $\text{Fe}_2\text{O}_3$ ) 함량 21~26.6%, 이산화규소( $\text{SiO}_2$ ) 함량 6.4~8.9% 지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한 화물 운송 수단을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최적화하기에 유리한 조건임.

## ○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 동력 개발

2003년에 첫번째 산업단지가 설립되었으며, 현재 총리가 승인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총 계획면적 3,517ha, 18개의 산업단지가 있음. 그 중, 11개의 산업단지는 설립되어 1,470ha의 면적에 걸쳐 운영되고 있음. 하이즈영성은 2050년까지의 비전으로 2021-2030년 기간 내 교통과 노동력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 내 약 10,000ha 크기의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지향하고 있음.

## ○ 인센티브 지원 정책

현행 규정에 따라 적용됨:

- 법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 세부규칙 및 시행지침의 시행령 제 218/2013/ND-CP 의결서(2013.12.26.)에 따름

| 투자지역, 분야                                                                                                           | 세율                               | 감면, 면제 기간                                                        |
|--------------------------------------------------------------------------------------------------------------------|----------------------------------|------------------------------------------------------------------|
| 의결서 218/2013/ND-CP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경제구역, 하이테크 구역에서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 15년 간<br>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br>이후 9년간 50% 감면                                  |
|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첨단 기술법의 규정에 따라 우선 순위 목록에 하이테크 응용 등의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                                  |                                                                  |
| 환경 보호 분야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실행 시                                                                                         |                                  |                                                                  |
| 의결서 218/2013/ND-CP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산업단지, 수출 가공 구역에서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 10년 간<br>17%<br>(2016.1.1.부터 유효)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br>이후 4년간 50% 감면<br>(사회경제적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위치한 공단 제외) |
| 고급 철강 생산, 에너지 절약 제품 제조, 농업, 임업, 어업 및 소금 생산을 위한 기계 및 장비 제조, 가축, 가금류 및 수생 동물을 위한 사료 생산 및 정제, 전통산업 개발 등의 신규 프로젝트 실행 시 |                                  |                                                                  |
| 농업 및 어업 부문 재배, 축산 및 가공                                                                                             | 10년 간<br>15%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br>이후 4년간 50% 감면                                  |



- 수입세: 수입세 및 수출세법에 대한 정부의 세부규칙 일부 조항 및 시행조치에 대한 제 134/ND-CP 의결서(2016.09.01)에 따름
- 토지세: 토지임대료,수면임대료에 대한 정부의 제 46/2014/ND-CP 의결서(2014.05.15.)에 따름

## □ 외국인 투자현황

### ○ 외국인 투자

2016년-2020년 기간에 하이즈영성은 212개의 신규 FDI 프로젝트와 생산 확장을 위한 약 200개의 추가투자 FDI 프로젝트를 접수하였음. 2011-2015년 기간과 비교하여 신규 FDI 프로젝트 수는 1.7배 증가했으며 총 추가 FDI 자본금은 1.5배 증가하였음.

2020년까지 하이즈영성 대상 총 외국인투자 자본금은 88억 달러에 달했으며, 홍하 삼각주 지역에서 4위, 전국에서 11위를 차지하였음.

2021년 10월말까지 모든 산업단지의 총 외국인투자는 235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49억 달러가 투자등록됨. 가장 많이 투자 유치하는 분야는 전기·전자, 기계 제조, 섬유, 가죽 및 신발임. 첨단 기술 라인을 바탕으로 높은 기술 콘텐츠의 제품을 생산하는 Brother, Hyundai Kefico, Hitachi 등의 대기업 프로젝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 한국계 투자

2021년 8월말까지 하이즈영성 대상 총 한국투자는 133개 프로젝트에 걸쳐, 12.87억 달러가 투자등록되며, 하이즈영성에 투자한 26개 국가 중 투자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1위, 투자 금액 기준으로 3위를 차지함. 2021년 10월말까지 성의 모든 산업단지 내 총 한국투자는 59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0.7억 달러가 투자등록됨.

### ○ 하이즈영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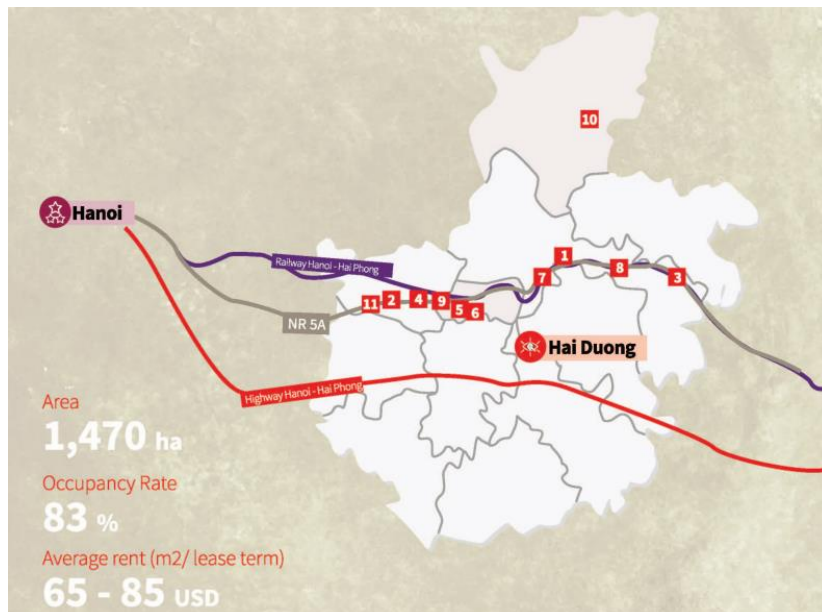
| 순번 | 프로젝트명                                          | 산업단지                              | 투자국     | 투자금액 (USD)  |
|----|------------------------------------------------|-----------------------------------|---------|-------------|
| 1  | Pacific Crystal Textiles Limited               | 라이부(Lai Vu)                       | 홍콩      | 425,000,000 |
| 2  | Hyundai Kefico Vietnam Co., Ltd                | 확장 다이안(Dai An)                    | 한국      | 350,000,000 |
| 3  | Dai An Vietnam-Canadian International Hospital | 다이안(Dai An)                       | 베트남-캐나다 | 260,000,000 |
| 4  | Regent Garment Co., Ltd                        | 라이부(Lai Vu)                       | 홍콩      | 189,500,000 |
| 5  | Brother Industries Vietnam Ltd                 | 푹디엔(Phuc Dien)                    | 일본      | 180,000,000 |
| 6  | Best Pacific Vietnam Co., Ltd                  | 깜디엔-르엉디엔<br>(Cam Dien-Luong Dien) | 홍콩      | 154,000,000 |
| 7  | Aiden Vietnam Co., Ltd                         | 남쌍(Nam Sach)                      | 일본-홍콩   | 120,000,000 |
| 8  | Sumidenso Vietnam Co., Ltd                     | 다이안(Dai An)                       | 일본      | 114,000,000 |
| 9  | UMC Vietnam Co., Ltd                           | 탄쯔엉(Tan Truong)                   | 일본      | 100,000,000 |
| 10 | Hitachi Cable Vietnam Co., Ltd                 | 탄쯔엉(Tan Truong)                   | 일본      | 90,000,000  |



## □ 공단 현황

## ○ 공단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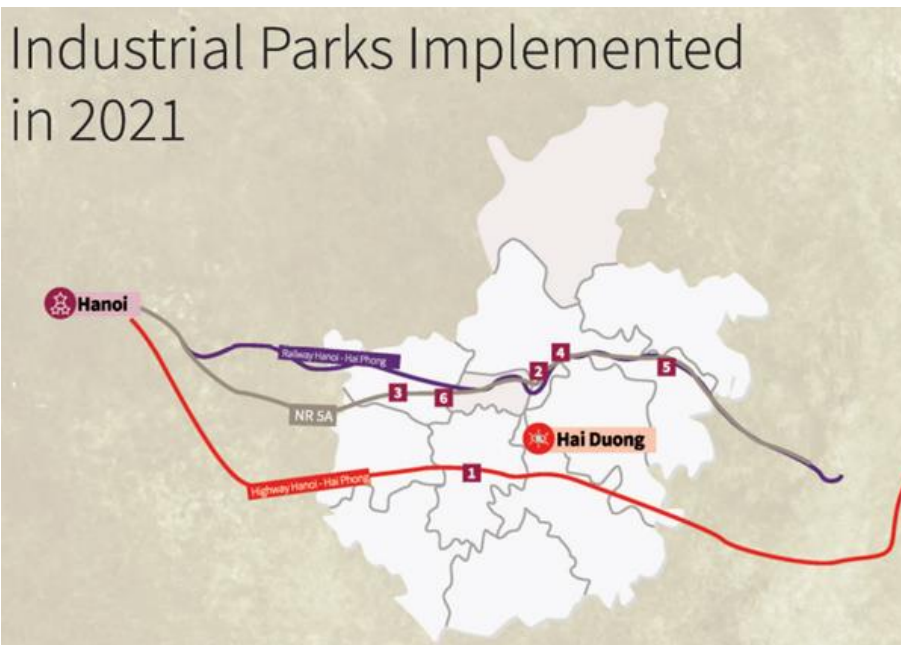
| 순번 | 공단명                               | 위치                  | 면적<br>(ha) | 입주율<br>(%) | 토지 임대<br>제한 기한   | 투자자                                                     |
|----|-----------------------------------|---------------------|------------|------------|------------------|---------------------------------------------------------|
| 1  | 남색(Nam Sach)                      | 남색(Nam Sach)현       | 62         | 100        | 2052년            | Nam Quang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JSC |
| 2  | 푼디엔(Phuc Dien)                    | 껀장(Cam Giang)현      | 83         | 100        | 2052년            | Nam Quang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JSC |
| 3  | 푸타이(Phu Thai)                     | 낌타잉(Kim Thanh)<br>현 | 57         | 96.4       | 2050년 /<br>2065년 | Nam Tai International Co., Ltd                          |
| 4  | 판즈엉(Tan Truong)                   | 껀장(Cam Giang)현      | 198        | 100        | 2055년            | Nam Quang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JSC |
| 5  | 다이안(Dai An)                       | 하이즈엉시               | 136        | 91.3       | 2052년            | Dai An JSC                                              |
| 6  | 확장 다이안(Dai An)<br>(1단계)           | 껀장(Cam Giang)현      | 189        | 74.4       | 2058년            | Dai An IP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 Ltd           |
| 7  | 안팏(An Phat) 하이테크                  | 하이즈엉시               | 46         | 61.4       | 2057년            | An Phat high-tech IP Co., Ltd                           |
| 8  | 라이푸(Lai Vu)                       | 낌타잉(Kim Thanh)<br>현 | 213        | 90.6       | 2054년            | Lai Vu IP Co., Ltd                                      |
| 9  | 라이깍(Lai Cach)                     | 껀장(Cam Giang)현      | 135        | 33.3       | 2058년            | Dai Duong Co., Ltd                                      |
| 10 | 꽁화(Cong Hoa)                      | 찌링(Chi Linh)시       | 201        | 53.6       | 2058년            | Rubber Urban Development and IP JSC                     |
| 11 | 깜디엔-르엉디엔<br>(Cam Dien-Luong Dien) | 껀장(Cam Giang)현      | 150        | 97.4       | 2058년            | VSIP Hai Duong Co., Ltd                                 |





○ 2021년에 개발중인 공단 정보

| 순번 | 공단명                         | 위치                  | 면적<br>(ha) | 주요 분야                                              | 진전                            | 투자자                                                     |
|----|-----------------------------|---------------------|------------|----------------------------------------------------|-------------------------------|---------------------------------------------------------|
| 1  | 자록<br>(Gia Loc)             | 자록(Gia Loc)현        | 197        | 전기 장비, 건설 장비·기계, 제조 기계, 정밀 기계, 소비재 생산, 의료 장비       | '21년 5월부터 프로젝트 전개 및 부지 정리 실시  | Nam Quang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JSC |
| 2  | 안팍<br>(An Phat 1)           | 남쌍(Nam Sach)현       | 180        | 전기 및 지원 산업, 기타 경공업, 제조 기계, 정밀 기계, 소비재 생산           | '21년 3월부터 프로젝트 전개 및 부지 정리 실시  | An Phat 1 High-tech IP JSC                              |
| 3  | 확장 다이안<br>(Dai An)<br>(2단계) | 껀장<br>(Cam Giang)현  | 227        | 오염이 적은 하이테크, 기타 경공업, 지원 공업                         | '21-'22년 내 프로젝트 전개 및 부지 정리 실시 | Dai An IP infrastructure development Ltd                |
| 4  | 확장 푸디엔<br>(Phuc Dien)       | 빈장(Binh Giang)현     | 215        | 조립 기계, 고급 건축 자재, 식품 가공, 소비재 생산, 전기·전자, 오염이 적은 하이테크 | '21년 5월부터 프로젝트 전개 및 부지 정리 실시  | Trung Quy-Bac Ninh investment JSC                       |
| 5  | 껀타잉<br>(Kim Thanh)          | 껀타잉<br>(Kim Thanh)현 | 165        | 정보 기술, 기계 제조, 정밀 기계, 하이테크, 청정산업, 가정 용품 생산, 전기·전자   | '21년 5월부터 프로젝트 전개 및 부지 정리 실시  | COMA 18 JSC                                             |
| 6  | 확장 판즈엉<br>(Tan Truong)      | 껀장(Cam Giang)현      | 113        | 하이테크, 정보 기술, 식품 가공, 전기·전자                          | '21 5월부터 프로젝트 전개 및 부지 정리 실시   | Tay Bac Industrial JSC                                  |





## □ 투자 유망분야

하이즈엉성은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경제구조 조정 및 산업모델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 정보기술, 전자기술 산업 ▲ 제조·가공업 및 지원 산업 ▲ 4차혁명 관련 산업 ▲ 녹색 산업 과 같은 4개의 주요 산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2021년에 이행되는 산업단지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둠

- 건설장비 및 기계, 고급 건축자재
- 기계 제조·조립, 정밀 기계
- 전기·전자 및 지원산업
- 소비재 및 가정용품 생산
- 의료 장비
- 식품가공
- 오염이 적은 첨단 기술
- 정보기술

## □ 하이즈엉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 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이메일                                                                                                  |
|-------------------|------------------------------|----------------------------------------------------------------------------------------------------------|
| 하이즈엉성 공단<br>관리위원회 | Mr. Pham Minh Phuong<br>(팀장) | Tel: +84-220-3844-723<br>Website: <a href="http://banqlkcن.haiduong.gov.vn">banqlkcن.haiduong.gov.vn</a> |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 구분<br>국가명 | 1988. 1. 1~2021. 10. 20 기준 누계 |            | 2021. 1. 1 ~ 10. 20 |           |           |
|-----------|-------------------------------|------------|---------------------|-----------|-----------|
|           | 건수                            | 투자금액       | 신규건수                | 신규투자금액    | 총투자금액     |
| 한 국       | 9,186                         | 73,913.46  | 293                 | 920.08    | 4,153.10  |
| 일 본       | 4,765                         | 63,943.28  | 150                 | 2,428.75  | 3,384.79  |
| 싱가포르      | 2,795                         | 62,996.72  | 174                 | 5,167.29  | 6,769.90  |
| 대 만       | 2,837                         | 35,111.17  | 51                  | 266.71    | 1,143.27  |
| 홍 콩       | 2,025                         | 27,529.98  | 101                 | 1,497.09  | 1,984.25  |
| 버진아일랜드(영) | 874                           | 21,953.41  | 22                  | 164.33    | 479.6     |
| 중 국       | 3,296                         | 20,957.69  | 166                 | 1,486.32  | 2,492.49  |
| 말레이시아     | 664                           | 13,015.10  | 15                  | 15.61     | 122.19    |
| 태 국       | 639                           | 12,965.92  | 31                  | 189.1     | 309.36    |
| 네덜란드      | 377                           | 10,402.75  | 18                  | 95.42     | 701.2     |
| 미 국       | 1,134                         | 9,717.59   | 64                  | 371.46    | 440.15    |
| 기타        | 5,674                         | 51,502     | 290                 | 417       | 1,758     |
| 전체 합계     | 34,266                        | 404,009.42 | 1,375               | 13,018.92 | 23,737.81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 연번 | 구분<br>산업       | 2021. 10. 20 기준 누계 |            | 2021. 1. 1 ~ 10. 20 |           |           |
|----|----------------|--------------------|------------|---------------------|-----------|-----------|
|    |                | 건수                 | 투자금액       | 신규건수                | 신규투자금액    | 총투자금액     |
| 1  | 제조, 가공         | 15,528             | 239,020.70 | 442                 | 5,823.67  | 12,744.72 |
| 2  | 부동산경영          | 978                | 61,339.47  | 44                  | 1,092.79  | 2,120.23  |
| 3  | 전력,가스,용수 제조 공급 | 173                | 33,723.49  | 21                  | 5,163.04  | 5,538.44  |
| 4  | 호텔, 외식서비스      | 897                | 12,551.07  | 16                  | 34.88     | 144.71    |
| 5  | 건설             | 1,765              | 10,710.70  | 21                  | 54.64     | 242.85    |
| 6  | 도소매,유지보수       | 5,509              | 8,801.86   | 382                 | 212.12    | 803.89    |
| 7  | 물류운수           | 903                | 5,767.80   | 38                  | 405.64    | 752.11    |
| 8  | 채광             | 108                | 4,898.40   | -                   | -         | 1.47      |
| 9  | 교육, 양성         | 604                | 4,429.42   | 22                  | 8.6       | 35.42     |
| 10 | 정보통신           | 2,427              | 4,075.10   | 118                 | 47.93     | 207.08    |
| 11 | 기술과학전문         | 3,740              | 4,050.04   | 220                 | 98.93     | 811.54    |
| 12 | 농,임,수산         | 516                | 3,714.67   | 15                  | 59.97     | 135.96    |
| 13 | 예술 오락          | 137                | 3,392.34   | 1                   | 0.13      | 0.91      |
| 14 |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 80                 | 2,899.75   | 1                   | 1.01      | 87.83     |
| 15 | 의료와 사회복지       | 152                | 2,000.16   | -                   | -         | 3.1       |
| 16 | 행정, 지원 서비스     | 517                | 985.9      | 32                  | 10.92     | 42.15     |
| 17 | 기타서비스          | 146                | 848.8      | 1                   | 0.15      | 3.15      |
| 18 | 금융, 은행, 보험     | 79                 | 788.69     | 1                   | 4.5       | 62.26     |
| 19 | 가구내 고용활동       | 7                  | 11.07      | -                   | -         | -         |
| 합계 |                | 34,141             | 403,188.88 | 1,212               | 12,498.89 | 22,145.96 |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10 (누계) |
|------|---------|---------|---------|--------------|
| 수 출  | 2,434.8 | 2,641.8 | 2,826.5 | 2,697.7      |
| 수 입  | 2,366.8 | 2,530.7 | 2,627.0 | 2,696.4      |
| 무역수지 | 68.0    | 111.1   | 199.5   | 1.3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 품 목 명       | 2018    | 2019    | 2020    | 2021.10 (누계) |
|-------------|---------|---------|---------|--------------|
|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49,077  | 51,378  | 51,183  | 46,574       |
| 전기전자제품/부품   | 29,320  | 35,925  | 44,576  | 40,854       |
| 기계/플랜트 및 부품 | 16,549  | 18,303  | 27,193  | 29,900       |
| 섬유/직물제품     | 30,448  | 32,850  | 29,809  | 26,091       |
| 신발류         | 16,238  | 18,320  | 16,791  | 14,244       |
| 원목 및 목제품    | 8,908   | 10,647  | 12,371  | 12,085       |
| 철강제품        | 4,549   | 4,210   | 5,258   | 9,654        |
| 수송수단 및 부품   | 7,964   | 8,505   | 9,090   | 8,584        |
| 수산물         | 8,794   | 8,543   | 8,412   | 7,074        |
| 원사(Yarn)    | 4,025   | 4,176   | 3,736   | 4,564        |
| 기 타         | 67,611  | 71,332  | 74,235  | 70,146       |
| 합 계         | 243,483 | 264,189 | 282,654 | 269,770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 품 목 명       | 2018    | 2019    | 2020    | 2021.10 (누계) |
|-------------|---------|---------|---------|--------------|
| 전자제품 및 컴퓨터  | 42,197  | 51,353  | 63,971  | 60,348       |
| 기계/플랜트 및 부품 | 33,727  | 36,748  | 37,251  | 38,391       |
| 각종 전화기 및 부품 | 15,865  | 14,615  | 16,645  | 16,813       |
| 의류(원단)      | 12,774  | 13,276  | 11,875  | 11,617       |
| 플라스틱 원료     | 9,066   | 8,991   | 8,397   | 9,627        |
| 각종 철강       | 9,890   | 9,507   | 8,066   | 9,603        |
| 기타 비금속      | 7,249   | 6,385   | 6,052   | 7,140        |
| 플라스틱 제품     | 5,893   | 6,538   | 7,274   | 6,531        |
| 화학제품        | 5,030   | 5,419   | 5,741   | 6,320        |
| 화학물질        | 5,163   | 5,128   | 5,016   | 6,124        |
| 기 타         | 89,833  | 95,110  | 92,412  | 97,131       |
| 합 계         | 236,687 | 253,070 | 262,700 | 269,645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 순번 | 국가명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10 (누계) |
|----|------|---------|---------|---------|---------|--------------|
| 1  | 미 국  | 41,608  | 47,526  | 61,347  | 77,077  | 76,745       |
| 2  | 중 국  | 35,463  | 41,268  | 41,414  | 48,905  | 44,518       |
| 3  | 한 국  | 14,823  | 18,205  | 19,720  | 19,107  | 17,946       |
| 4  | 일 본  | 16,841  | 18,851  | 20,413  | 19,284  | 16,257       |
| 5  | 홍 콩  | 7,583   | 7,955   | 7,156   | 10,437  | 9,344        |
| 6  | 네덜란드 | 7,106   | 7,076   | 6,881   | 6,999   | 6,202        |
| 7  | 독 일  | 6,364   | 6,869   | 6,555   | 6,644   | 5,830        |
| 8  | 인 도  | 3,756   | 6,542   | 6,674   | 5,235   | 5,145        |
| 9  | 태 국  | 4,786   | 5,494   | 5,272   | 4,917   | 4,965        |
| 10 | 영 국  | 5,424   | 5,776   | 5,758   | 4,955   | 4,735        |
|    | 기 타  | 77,364  | 77,921  | 82,999  | 79,094  | 78,083       |
|    | 합 계  | 214,019 | 243,483 | 264,189 | 282,654 | 269,770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 순번 | 국가명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10 (누계) |
|----|---------|---------|---------|---------|---------|--------------|
| 1  | 중 국     | 58,229  | 65,438  | 75,452  | 84,187  | 89,146       |
| 2  | 한 국     | 46,734  | 47,497  | 46,935  | 46,895  | 45,067       |
| 3  | 일 본     | 16,592  | 19,011  | 19,526  | 20,341  | 18,092       |
| 4  | 대 만     | 12,707  | 13,228  | 15,173  | 16,701  | 16,923       |
| 5  | 미 국     | 9,203   | 12,753  | 14,365  | 13,713  | 12,850       |
| 6  | 태 국     | 10,495  | 12,023  | 11,656  | 10,968  | 10,228       |
| 7  | 말레이시아   | 5,860   | 7,450   | 7,291   | 6,575   | 6,646        |
| 8  | 오스트레일리아 | 3,182   | 3,984   | 4,456   | 4,677   | 6,508        |
| 9  | 인도네시아   | 3,640   | 4,918   | 5,703   | 5,382   | 6,139        |
| 10 | 인 도     | 3,940   | 4,147   | 4,538   | 4,435   | 5,842        |
|    | 기 타     | 40,521  | 46,238  | 47,975  | 48,826  | 52,204       |
|    | 합 계     | 211,103 | 236,687 | 253,070 | 262,700 | 269,645      |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10 (누계) |
|------|--------------|--------------|--------------|--------------|--------------|
| 수출   | 47,749(46.3) | 48,629(1.8)  | 48,178(-0.9) | 48,543(0.8)  | 45,648(17.8) |
| 수입   | 16,176(29.5) | 19,632(21.4) | 21,071(7.3)  | 20,579(-2.3) | 19,666(12.9) |
| 무역수지 | 31,573       | 28,997       | 27,107       | 27,964       | 25,982       |

자료원: KITA

###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 품목명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10 (누계) |
|--------------|--------------|--------------|--------------|--------------|--------------|
| 반도체          | 9,235(101.9) | 10,939(18.5) | 10,730(-1.9) | 11,501(7.2)  | 11,243(17.7) |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7,367(193.0) | 8,909(20.9)  | 7,970(-10.5) | 9,552(19.9)  | 9,359(33.9)  |
| 무선통신기기       | 3,286(-36.7) | 2,632(-19.9) | 2,933(11.4)  | 3,467(18.2)  | 2,748(-6.3)  |
| 기구부품         | 2,612(57.7)  | 2,332(-10.8) | 2,230(-4.4)  | 2,250(0.9)   | 1,974(7.4)   |
| 합성수지         | 1,442(19.8)  | 1,659(15.1)  | 1,624(-2.1)  | 1,615(-0.6)  | 1,963(53.4)  |
| 철강판          | 985(20.1)    | 1,049(6.5)   | 1,158(10.4)  | 1,052(-9.1)  | 1,026(17.1)  |
| 플라스틱 제품      | 1,152(54.9)  | 1,205(4.6)   | 1,210(0.4)   | 1,115(-7.9)  | 971(4.4)     |
| 석유제품         | 1,978(81.0)  | 1,980(-0.4)  | 2,194(11.0)  | 1,195(-45.6) | 891(-8.1)    |
| 계측제어분석기      | 1,058(145.1) | 696(-34.2)   | 783(12.4)    | 669(-14.5)   | 818(48)      |
| 자동차부품        | 385(-12.7)   | 474(23.3)    | 668(40.9)    | 673(0.8)     | 754(51.3)    |
| 기타           | 17,516       | 16,121       | 16,350       | 15,244       | 13,901       |
| 합계           | 47,749(46.3) | 48,629       | 48,178(-0.9) | 48,511(0.7)  | 45,648(17.8) |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 품목명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10 (누계) |
|------------|--------------|--------------|-------------|--------------|--------------|
| 무선통신기기     | 3,964(26.0)  | 4,835(21.4)  | 5,691(17.6) | 4,980(-12.5) | 4,756(7.9)   |
| 의류         | 2,874(17.4)  | 3,570(24.2)  | 3,646(2.1)  | 3,146(-13.7) | 2,808(1.4)   |
| 컴퓨터        | 560(1.4)     | 534(-4.6)    | 679(25.9)   | 1,270(87.1)  | 1,423(46.3)  |
| 신변잡화       | 797(24.2)    | 980(23.1)    | 1,053(7.4)  | 1,029(-2.2)  | 832(-4.9)    |
|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604(976.6)   | 1,137(88.3)  | 1,197(5.2)  | 1,027(87.1)  | 694(-24.8)   |
| 목재류        | 511(19.4)    | 793(55.1)    | 657(-17.1)  | 632(-3.9)    | 614(18.5)    |
| 산업용 전기기기   | 317(10.3)    | 416(31.1)    | 479(14.8)   | 574(20.0)    | 597(28.1)    |
| 반도체        | 374(203.7)   | 396(5.8)     | 471(19.1)   | 561(18.9)    | 536(13.5)    |
| 기구부품       | 496(89.9)    | 445(-10.4)   | 512(15.1)   | 481(-5.9)    | 499(27.6)    |
| 영상기기       | 400(17.7)    | 329(25.6)    | 356(-2.0)   | 406(14.0)    | 386(14.6)    |
| 기타         | 5,279        | 6,197        | 6,330       | 6,473        | 6,521        |
| 합계         | 16,176(29.5) | 19,632(21.4) | 21,071(7.3) | 20,579(-2.3) | 19,666(12.9) |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0~2021년 주요 경제지표 >

| 구 분    |                      | 시 기       | 단위 | 국 가   |       |       |       |         |
|--------|----------------------|-----------|----|-------|-------|-------|-------|---------|
|        |                      |           |    | 싱가포르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 GDP증가율 |                      | 2020년(연간) | %  | △5.4  | △9.5  | △5.6  | △2.1  | 2.9     |
|        |                      | 2021년 2Q  | %  | 14.7  | 11.8  | 16.1  | 7.1   | 6.6     |
|        |                      | 2021년 3Q  | %  | 6.5   | 7.1   | △4.5  | 3.5   | 3.9     |
| 생산     | 산업생산<br>(증가율 또는 지수)  | 2020년(연간) | -  | 107.5 | N/A   | 109.8 | 147.0 | 3.4%    |
|        |                      | 2021년 9월  | -  | 123.4 | 528.1 | 118.1 | N/A   | △5.5%   |
|        |                      | 2021년 10월 | -  | N/A   | 523.3 | N/A   | N/A   | △1.6%   |
|        | 구매관리지수<br>(PMI)      | 2020년(연간) | -  | N/A   | N/A   | 102.4 | 44.7  | N/A     |
|        |                      | 2021년 9월  | -  | 50.8  | 50.9  | 113.6 | 52.2  | 40.2    |
|        |                      | 2021년 10월 | -  | 50.8  | 51.0  | N/A   | 57.2  | 52.1    |
| 소비     | 소비자동향지수              | 2020년(연간) | -  | 99.8  | N/A   | 79.5  | 93.6  | N/A     |
|        |                      | 2021년 9월  | -  | 102.7 | N/A   | 101.7 | 95.5  | N/A     |
|        |                      | 2021년 10월 | -  | N/A   | N/A   | N/A   | 113.4 | N/A     |
|        | 소매판매                 | 2020년(연간) | -  | 81.7  | N/A   | 131.0 | 197.5 | 2.6%    |
|        |                      | 2021년 9월  | -  | 88.1  | 1.8%  | 132.3 | 190.3 | △28.4%  |
|        |                      | 2021년 10월 | -  | N/A   | 2.0%  | N/A   | 193.0 | △19.5%  |
|        | 소비자물가<br>(증가율 또는 지수) | 2020년(연간) | %  | △0.2  | N/A   | △1.2  | 104.9 | 3.2     |
|        |                      | 2021년 9월  | %  | 2.5   | 4.8   | 2.2   | 106.5 | 2.1     |
|        |                      | 2021년 10월 | %  | N/A   | 4.6   | N/A   | 106.7 | 0.2     |
| 투자     | 고정자산투자               | 2020년(연간) | %  | 171.7 | N/A   | 1.5   | △5.0  | △25     |
|        |                      | 2021년 9월  | %  | N/A   | N/A   | 6.8   | 3.7   | 4.4(누계) |
|        |                      | 2021년 10월 | %  | N/A   | N/A   | N/A   | 3.7   | 1.1(누계) |
| 고용     | 실업률                  | 2020년(연간) | %  | 3.0   | 10.4  | 4.5   | 7.1   | 2.5     |
|        |                      | 2021년 2Q  | %  | 2.8   | 8.7   | 4.6   | 6.3   | 2.6     |
|        |                      | 2021년 3Q  | %  | 2.7   | 6.9   | 4.6   | 6.5   | 4.1     |
| 무역     | 수출증가율                | 2020년(연간) | %  | △3.2  | △10.1 | △1.4  | △2.2  | 6.5     |
|        |                      | 2021년 9월  | %  | 18.6  | 6.3   | 24.7  | 54.5  | △0.6    |
|        |                      | 2021년 10월 | %  | 22.7  | N/A   | N/A   | 53.4  | 0.3     |
|        | 수입증가율                | 2020년(연간) | %  | △7.4  | △23.3 | △6.3  | △16.9 | 3.6     |
|        |                      | 2021년 9월  | %  | 18.7  | 24.8  | 26.5  | 40.3  | 9.5     |
|        |                      | 2021년 10월 | %  | 25.6  | N/A   | N/A   | 51.1  | 8.1     |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 ‘위드 코로나’시대, 신남방 3국 (베트남 🇻🇳 | 인도네시아 🇮🇩 | 인도 🇮🇳) 비즈니스 현장점검 웨비나

(한국기준)

2021.12.1(수)~3(금) 14시~15시 | 온라인 개최 ( YouTube ‘kotra 비즈니스’ 채널)

해외출장이 어려운 시기, 신남방 현지에서 전하는 최신 경제·산업 동향 및 대응 전략!

## 프로그램

### 베트남 12.1(수)

| 시간(한국기준)    | 내용                           | 비고                   |
|-------------|------------------------------|----------------------|
| 14:00~14:15 | 베트남 현지 ‘위드 코로나’ 정책 동향 및 전망   | 이종섭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장      |
| 14:15~14:30 | 2022년 베트남 경제 전망 및 비즈니스 대응 전략 | 박민준 팀장(베트남 비즈니스협력센터) |
| 14:30~14:45 |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베트남 비즈니스 법률    | 전현우 변호사(법무법인JP)      |
| 14:45~15:00 |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사항(FAQ) 답변      | 박민준 팀장               |

### 인도네시아 12.2(목)

| 시간(한국기준)    | 내용                            | 비고                  |
|-------------|-------------------------------|---------------------|
| 14:00~14:15 | 인도네시아 현지 ‘위드 코로나’ 정책 동향 및 전망  | 이종윤 무역관장            |
| 14:15~14:30 | 2022년 인도네시아경제 전망 및 비즈니스 대응 전략 | 안대웅 이사(미래에셋)        |
| 14:30~14:45 | 인도네시아 시장의 진출애로 현안과 대응 방안      | 복덕규 팀장(인니 비즈니스협력센터) |
| 14:45~15:00 |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사항(FAQ) 답변       | 복덕규 팀장              |

### 인도 12.3(금)

| 시간(한국기준)    | 내용                          | 비고                  |
|-------------|-----------------------------|---------------------|
| 14:00~14:15 | 인도 현지 ‘위드 코로나’ 정책 동향 및 전망   | 빈준화 서남아지역본부장        |
| 14:15~14:30 | 2022년 인도 경제 전망 및 비즈니스 대응 전략 | 최명례 팀장(인도 비즈니스협력센터) |
| 14:30~14:45 | 인도 금융산업 현황 및 주요 현안          | 홍성창 자점장(농협은행)       |
| 14:45~15:00 |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사항(FAQ) 답변     | 최명례 팀장              |

## 참가방법

**베트남편 라이브 URL 바로가기**

## 문의처

KOTRA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  
02-3460-3477, nsbd@kotra.or.kr



# 기업인 베트남 입국 지원 안내

코트라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하노이 코참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지원 하에 아래와 같이 베트남 입국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접 수     | 대한상의 기업인 베트남 입국지원 사무국 (이메일 접수)            |
| 격 리 기 간 | 시설격리 1주(백신접종 완료자)~2주(백신 미접종자) / 자가격리 1~2주 |
| 제 출 서 류 | 필수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여권사본 (게시글 첨부파일)          |
| 대 상 자   | 베트남 출장을 희망하는 기업 필수인력 등                    |

대한상의 접수 이메일(문의) region@korcham.net (02-6050-3563, 3552)

## 베트남 입국지원 추진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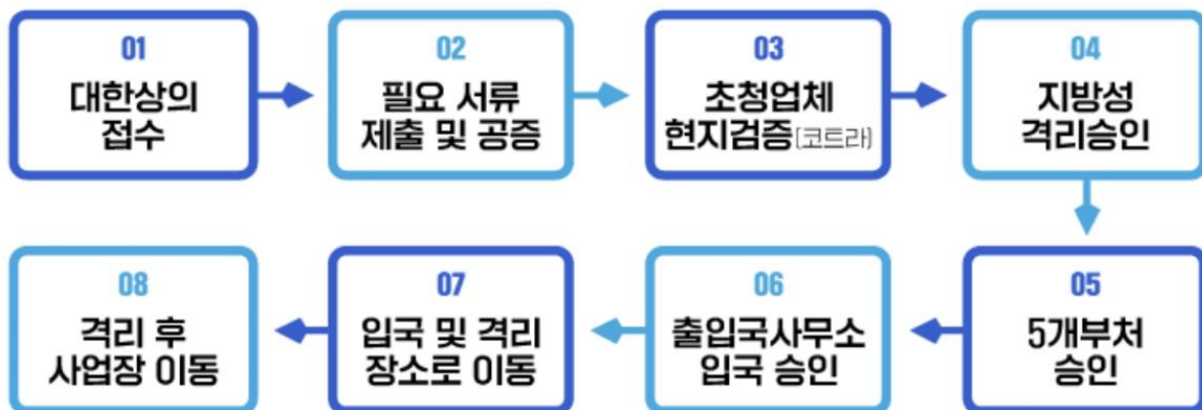
|            |            |           |           |
|------------|------------|-----------|-----------|
| 26차        | 27차        | 28차       | 29차       |
| 11. 26.(금) | 12. 22.(수) | 1. 26.(수) | 2. 23.(수) |

\*현지 사정에 따라 입국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 ⚠ 주의사항

- ※ 서류 접수가 곧 입국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입국지원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대한상의는 서류접수 대행사를 두지 않고, 상기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베트남 입국지원 절차 (일정 확정 후 약 8주 소요)



\* 백신접종완료자 : 8박 9일  
백신미접종자 : 15박 16일

클릭하여 자세히보기



일상 회복의 시대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 2022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설명회 개요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09:30~17:30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5F)

위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실시

**오프라인** 설명회 현장참석(선착순 100명, 오찬 제공)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만 오프라인 참가 신청 가능하며,  
참석당일 접종 확인 사실 증명에 어려운 경우 참석이 제한됩니다.  
(입종원료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확인 후 입장 가능)

**온라인** ▶ Kotra Biz 채널 / IBM watson 동시 송출

##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연사                          |
|-------------|------------------------------|-----------------------------|
| 09:30~09:50 | 등록                           |                             |
| 09:50~09:55 | 개회사                          | KOTRA                       |
| 09:55~10:00 | 축사                           | 산업부                         |
| 10:00~10:30 | 기조강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 송승현 McKinsey&Company 시니어파트너 |
| 10:30~11:00 | 북미지역 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 박성호 본부장                     |
| 11:00~11:30 | 유럽지역 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 이길범 본부장                     |
| 11:30~12:00 | 일본지역 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 정외영 본부장                     |
| 12:00~12:20 | Q&A                          |                             |
| 12:20~14:00 | 정식                           |                             |
| 14:00~14:30 | 세남아지역 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 빈준화 본부장                     |
| 14:30~15:00 | 중남미지역 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 김가중 본부장                     |
| 15:00~15:30 | 중동지역 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            | 양기모 본부장                     |
| 15:30~15:50 | Q&A                          |                             |
| 15:50~16:10 | 중국지역 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온라인)       | 홍창표 본부장                     |
| 16:10~16:30 | 동남아·대양주지역 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온라인)  | 이종섭 본부장                     |
| 16:30~16:50 | CIS지역 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온라인)      | 이정훈 본부장                     |
| 16:50~17:10 | 아프리카지역 시장 전망 및 진출전략(온라인)     | 손병일 본부장                     |
| 17:10~17:30 | Q&A                          |                             |

## 연사소개



송승현  
McKinsey&Company  
시니어파트너



박성호  
KOTRA  
북미지역본부장



이길범  
KOTRA  
유럽지역본부장



정외영  
KOTRA  
일본지역본부장



빈준화  
KOTRA  
세남아지역본부장



김가중  
KOTRA  
중남미지역본부장



양기모  
KOTRA  
중동지역본부장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장



이종섭  
KOTRA  
동남아지역본부장



이정훈  
KOTRA  
CIS지역본부장



손병일  
KOTRA  
아프리카지역본부장

## 부대행사: 현장 컨설팅

### 행사개요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14:00~17:00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5F)

- 현장 컨설팅은 오프라인 참석자 대상으로만 각 지역본부장과 진행
- 권역별 상담가능 시간

|             |                 |
|-------------|-----------------|
| 14:00~15:30 | 북미, 유럽, 일본 지역   |
| 15:30~17:00 | 세남아, 중남미, 중동 지역 |

### 행사참여 안내

「2022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참가신청 페이지 접속

▷ 오프라인 참가신청 ▷ 컨설팅 워크 참가신청 Y 체크 ▷ 상담희망권역 선택  
▷ 사전질문 기재 ▷ 신청승인 메일 수령 ▷ 상담시간 안내 메일 수령

※상담 신청 전 권역별 상담가능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후 상담 매칭 및 일정이 별도로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2022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운영사무국

☎ 02-6952-3348 ✉ 2022globalmarket@gmail.com

참가신청하기

KOTRA 하노이  
FTA 활용지원센터

## 수출입기업이 꼭 알아야할 품목별 FTA 핵심지식 시리즈 - 1편 화장품

### 1. 화장품 수출입 개요

화장품처럼 인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및 유통'을 각국 국내법률로 규제합니다. 베트남은 베트남 보건부의 '화장품 관리규정 시행령'을 제정하여 화장품의 수출입을 규제합니다.

화장품 수출입업자는 ①**화장품 등록절차**, ②**라벨링**, ③**FTA 활용방안**을 숙지해야 합니다.

### 2. 화장품 등록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베트남 식약청(DAV)'에 **화장품 인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의무는 **수입자(바이어)**에게 있습니다.

외국에 소재한 수출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자에게 제공하여 등록절차를 도와야 합니다.

- 제조사 **위임장(LOA)**
- **자유판매증명서(CFS)** :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 제조업증명서, 완제품 분석증명서, 기타 제품정보 서류

\*\* 외국의 기관, 법인 등이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하며, 자유판매증명서 등 **기관발급 서류**는 '외교부 인증'과 **베트남대사관 인증**을 받고 위임장 등 **자율발급 서류**는 인증은 물론 '공증'도 받아야 합니다.

### 3. 화장품 라벨링

베트남에 수입되는 화장품은 다음을 포함한 **베트남어 라벨링**이 필수입니다.

- 제품명, 제품책임자 및 주소, 제품 로트(Rot) 번호
- 제품용량, 제조일자, 사용기한, 원산지
- 성분, 함유량 등

### 4. 화장품 수입FTA 활용

화장품의 경우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에서 점진적으로 세율이 양허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매년 세율표를 참고해서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야하며, 2021년 기준으로는 세율이 다음과 같습니다.(대표품목)

- 입술화장용 제품(HS 3304.10.00) : 한-베 FTA, 한-아세안 FTA **5%**
- 눈화장용 제품(HS 3304.20.00) : 한-베 FTA, 한-아세안 FTA **5%**
- 파우더(HS 3304.91.00) : 한-아세안 FTA **5%**
- 로션, 크림 등(HS 3304.99.90) : 한-아세안 FTA **5%**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문의처: KOTRA 하노이 FTA활용지원센터

김태윤 관세사 (kty5714@kotra.or.kr)

한아름 대리(rachel@kotra.or.kr)





## 베트남 경쟁법 설명회 안내

베트남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베트남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현지 공정거래법의 특징, 조사, 절차 등에 대해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대상]

베트남의 경쟁법 규제에 관심 있는 기업 임직원 등

### [일시 및 장소]

2021년 12월 17일(금) 14:30~16:00 (현지 시각 12:30~14:00),  
온라인(Zoom) 설명회

### [진행순서]

| 시간                                  | 내용                          | 발표자                  |
|-------------------------------------|-----------------------------|----------------------|
| 14:30~15:00<br>*하노이 기준(12:30~13:00) | 사전등록(Zoom 접속) 및 설명회 진행방식 안내 | 공정위 국제협력과            |
| 15:00~15:40<br>*하노이 기준(13:00~13:40) | 베트남 경쟁법 주요 내용 및 최신 사례 설명    | 이준우 변호사<br>(법무법인 화우) |
| 15:40~16:00<br>*하노이 기준(13:40~14:00) | 질의응답                        |                      |

###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이수연 조사관(044-200-4324)

### [참가신청]

12월 14일까지 참석자 명단(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을 [zitooo@korea.kr](mailto:zitooo@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